47호 - 주체91(2002)년 5월 31일 (금)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 216개 단체, ≪6.15축전 범민련 한총련 조건없는 참가보장≫ 촉구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범민련 한총련의 조건없는 참가를 보장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16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 범민련.한총련 조건없는 참가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범민련 한총련의 조건없는 참가보장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 4일째를 맞고 있는 통일연대와 범민련 남측본부를 대표해 이종린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했다.

이종린 의장은 지난 13일 실무회담이 통일부의 고의적인 불허조치로 무산됐다면서 이것은 결국 정부가 6.15선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6.15선언에 지지하고 뜻을 같이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대회를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작년 4차 장관급 회담과 임동원 특사의 방북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정부가 이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이 낭독한 공동성명 에서 참가단체들은 ≪6.15민족통일대축전과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배제시키는 것은 6.15민족통일대축전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6.15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어떤 도발, 통일애국단체를 탄압하려는 어떤 책동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실무회담이 무산되자 통일연대 측이 통일부 항의방문과 규탄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어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부산지역 93개 사회단체의 공동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오늘 200여 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참가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경우 사무처장과 이경원(범남본 경인연합) 사무국장이 통일부에 항의방문을 해 공동성명 전달과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 후 이를 6월 5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28일 북측이 판문점 대한적십자사 연락선을 통해 서한과 초청장을 보내옴으로써 이제는 정부당국의 입장 변화가 6.15민족통일대축전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는 데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의 이같은 성명 발표는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따라서 이후 6.15공동선언 이행의 의지를 보여줄 정부 당국의 선택이 더욱 주목된다.

한편, 이번 1-2일 금강산 실무회담과 같은 시기에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통노회)를 위한 실무접촉을 위해 방북할 예정이었던 양대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리고 ≪남북한 언론인.기자≫ 실무접촉을 위한 한국기자협회와 이북 조선기자동맹과의 만남도 통일부로부터 지난 13일 실무회담 무산 시와 같은 ≪공동사무국 경유의 팩스≫라는 이유로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30일 이북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앞으로 ≪6.15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 2주년 공동행사때 만나자고 수정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노총은 통일부의 불허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하에 ≪내일 방북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밝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송정미 기자**
**2002/05/30 통일뉴스**


**2 종합**
- 에티오피아에서 노작연구토론회
- 형상수준이 독특한 나무공예
- 민주조선,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주장
- 6.15민족통일대축전북측해외준비위 조직
- 이회창의 사죄와 은퇴를 요구
- 6.15선언 2항 통일방안 합의는 아니다
- 6.15선언 2주년 기념행사 곡 성사하자
- 미제의 생화학전은 조선민족 멸살을 노린 고의적인 범죄행위(3)

**4 노작**
-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3)

**6 세기와 더불어**
- 9장 2절 부자와 가난뱅이(2)

**8 칭송**
- **김정일**동지를 수령으로 모신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9 노동신문 정론**
- 장군의 역사 영원히 흐른다(2)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대학생들을 주체의 혁명가로 준비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친일역적 후손이 대통령 후보라니
- 동족과 공조하여 외세를 배격해야
- 미국은 침략자
- 한총련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13 투쟁보도**
- 김형주의 범죄구성요건은 무엇인가?
- 최후진술도 처벌대상인가?
- 이번에는 3조원대 구축함 도입의혹?
-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반대 1인시위
- 여성노동자 4명, 목숨 건 한강대교 점거

**15 운동강좌**
- 한국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과 대규모연합전선조직체 건설문제(2)


# 6월항쟁 15주년을 반전평화로

## ≪6월계승 평화대회≫ 선포 기자회견 열려

6월 항쟁 15주년을 맞아 6월 2-22일까지 ≪6월항쟁 15주년기념 반전평화대회≫(이하 6월계승 평화대회)가 개최된다.

시민 사회 종교단체와 당시 항쟁 참가자들로 구성된 ≪6월항쟁 계승 반전평화대회위원회≫(공동대표 오종렬 외 24인)는 30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월계승 평화대회 개최를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6월계승 평화대회 개최의 취지에 대해 ≪최근 한반도 전쟁위기에 따른 국민의 평화열망이 표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6월 항쟁의 현재성과 계승성을 강조하면서 반전평화운동의 전국민적 확산≫과 ≪월드컵기간과 연계한 반전평화운동의 국제적 전개를 통한 평화운동의 세계적인 확산을 통해 국제연대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민주.평화역량의 결집을 이루어 내기 위한 계기≫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6월계승 평화대회≫의 사업을 알리는 한편, ▲6월계승 평화대회에 참여해 미.일 외세에 의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할 것 ▲≫6.22반전평화세계동시행동의 날≫에 참여해 미국 부시정권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 강력한 시위를 전개할 것 ▲한일 공동월드컵에 참가한 각국의 선수단에게 ≪6.22반전평화세계동시행동의 날≫에 함께 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세계로 전달해 줄 것 등을 호소했다.

주최측에 의하면 6월계승 평화대회 기간동안 ▲6월 항쟁 15주년 기념식(6.10)과 2002인 시국선언(6.10) ▲반전평화 인권보장촉구 이주노동자 국제캠페인(5.31-6.4) ▲제6회 시민달리기 대회 ≪행진 610≫(6.9) ▲박정희기념관도둑착공규탄 범국민대회(6.9) ▲문화대축제(6.15) ▲인터넷으로 만나는 6월항쟁 기념관(www.610.or.kr) ▲반전평화세계동시행동의 날(국제평화포럼, 반전평화국제선언, 반전평화한국대회 등 6.21-22) ▲제13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6.8)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송정미 기자**
**2002/05/30 통일뉴스**

# 에티오피아에서 노작 연구토론회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5월 18일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는 에티오피아의 주체사상연구조직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아디스 아바바 주체사상연구소조책임자를 비롯한 연사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셨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저작을 발표하시어 사람의 사상의식, 사회적 운동의 주체,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에 관한 문제 등 노동자계급의 당건설과 사회주의건설, 인류의 자주위업 실현을 위한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셨다면서 연사들은 그분의 사상이론은 철학뿐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 등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사들은 조선은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를 모시고 있기에 사상의 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29일

# 형상수준이 독특한 나무공예

인민무력부선물관에 전시된 나무공예 ≪노래로 시작된 우리 혁명 노래로 승리하리라≫가 만사람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400여년간 자란 피나무뿌리를 채취하여 만든 이 작품은 높이 3m, 너비 2. 16m이다.

작품에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음악정치에 대한 칭송과 **김정일**최고사령관에 대한 군인들의 절대적인 숭배심이 반영되여 있다.

작품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압록강을 건느시며 부르신 ≪압록강의 노래≫와 그이의 친작 가요들이 부각되여 있다.

≪조선의 별≫노래를 지어 부르며 주석을 단결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신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사향가≫를 부르며 광복될 조국을 그려 보던 항일혁명투사들, 전쟁시기 갱도안에서 탄피로 만든 악기를 가지고 화선오락회를 진행하는 인민군군인들, ≪복구건설의 노래≫ 높이 부르며 전후복구건설에 떨쳐 나선 인민들의 영웅적투쟁모습등이 작품에 담겨 져 있다.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모습도 생동하게 형상되여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상과 내용, 형상수준이 독특한 이 작품을 보시고 조선의 명곡이 다 들어 있다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2002/05/29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주장

≪민주조선≫ 29일부는 남조선의 ≪검찰≫이 ≪한총련≫을 ≪리적단체≫로 몰아 10기 ≪한총련≫의장과 대변인에 대한 체포령장을 발부하고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은 천만번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한총련≫이 내세운 강령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벌린 활동은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것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탄압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론평은 남조선의 ≪공안≫당국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한총련≫의 활동을 문제시하고 탄압소동을 일으키고 있는것은 결국 그들이 남조선을 외세의 지배밑에 그대로 두고 나라의 분렬을 지속시키려는 흉심을 품고 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 100만 학우들의 전위조직인 ≪한총련≫을 ≪리적단체≫로 규정하고 그 핵심성원들에 대한 폭압소동을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통일선언인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에 훼방을 노는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책동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다.

≪한총련≫은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을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자기의 정의로운 위업을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남조선당국은 ≪한총련≫에 대한 ≪리적단체≫규정을 철회하고 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애국적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 두어야 한다.

2002/05/29 조선중앙통신

# 6.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 해외 준비위원회 조직

6.15공동선언발표 2돐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가 27일 평양에서 조직되였다.

북측준비위원회는 민족화해협의회 김영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1명으로 구성되였다.

2002/05/28 조선중앙통신

지난 27일 ≪6.15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북측준비위)의 발족에 이어 ≪6.15민족통일대축전 해외준비위원회≫(해외준비위)가 발족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범민련 공동사무국이 30일 오후 2시경 범민련 남측본부로 보내온 팩스에는 오늘 발족한 해외본부는 남북단체들이 오는 1-2일 금강산 실무회담 개최와 민족통일대축전의 개최를 합의한 데 대해 지지 환영한다고 밝히고, ≪해외 여러 단체와 인사들의 뜻을 모아 해외준비위원회 발족을 선포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우(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북측이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단순히 남북간 만남이 아니라 해외동포를 포함한 7천만 동포의 전민족적 행사로 성대히 치르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여곡절 속에 6월 1-2일 금강산 실무회담은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 여부는 남측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많은 가운데, 지난 27일 북측준비위의 발족에 이어진 이번 해외준비위의 발족은 해외동포들과 북측의 6.15행사 성사를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진다.

송정미 기자
2002/05/30 통일뉴스

# 북 신문, ≪6.15선언 2항, 통일방안 합의는 아니다≫

이북의 노동신문은 30일 최근 남쪽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은 남북간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할 것일 뿐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평양방송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논평≫ 기사에서 6.15선언 2항을 설명하며 ≪북과 남이 통일방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적극 살려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이 조항을 쌍방이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북과 남이 반세기 이상 분열되어 살아왔는데 어떻게 견해나 입장에서 차이가 없겠는가≫라며 ≪그러나 서로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자면 쌍방이 다같이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찾아 나가야하며 그것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의 이같은 보도는 6.15선언 2항에 관한 이북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남한 정치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남북이 함께 이 선언의 실천에 앞장설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6.15선언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로 명시돼 있다.

강진욱 기자
2002/05/30 연합뉴스

# 이회창의 사죄와 은퇴를 요구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한통련)은 리회창이 6. 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망언을 늘어 놓은것과 관련하여 24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오직 ≪대통령≫이 되기 위해 미국정부의 전쟁정책에 추종하여 6. 15공동선언을 백지화하고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랭전시대로 이끌어 가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리회창에게 국민의 운명을 맡길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리회창은 망언을 취소하고 민족앞에 사죄하며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에서 즉각 사퇴하고 은퇴할것을 성명은 강력히 요구하였다.

2002/05/29 조선중앙통신

# 6.15선언 2주년 기념행사 꼭 성사하자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2주년 기념행사가 성사될 것인가? 28일 ≪6.15공동선언 발표 2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북측 준비위)가 남측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준비위원회≫(남측 준비위) 앞으로 ≪6월 1일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서한과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그 가능성을 한껏 높였다. 남북 준비위간에 실무회담이 성사됨에 따라 6.15선언 2주년을 기념하는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실무회담의 성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현재 당국자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남북간 접촉 채널이 모두 끊긴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올해 초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에서 정부당국의 통일연대 대표들에 대한 방북불허 조치로 인한 행사무산 ▲4월초 임동원 특사 방북(4.3~6) 이후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미시 이북 관련 발언 파문에 따른 경추위 무산 ▲이달 중순경 6.15 공동선언 2돌 기념행사 실무접촉 무산 등, 부침을 겪는 남북관계에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지 않냐는 기대를 주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남측 내부에서 나타난 민간 대 당국간의 불협화음을 수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당국은 지난 13일 금강산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민간실무회담과 관련, 초청자 명단이 담긴 팩스가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경유한 것에 대해 ≪합법적 경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서류미비≫로 처리해 실무회담이 무산된 바 있다. 실무회담이 무산되자 그 원인을 둘러싸고, ≪정부당국이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통한 팩스교환 불인정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통일연대 측의 주장과, ≪북측이 범민련 공동사무국을 경유한 팩스를 보내온 것이 문제≫라는 정부당국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양측은 책임론 공방을 벌여 왔다.

이러는 중에 6.15선언 기념행사와 관련한 최근 북측의 움직임은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하나는 북측이 27일 ≪6.15 공동선언 발표 2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북측준비위원회≫를 조직한 것이다. 이는 6.15 공동선언 2주년 기념행사의 사업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민간차원 통일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북측 준비위가 북측적십자사에 위임해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서한과 초청장≫을 판문점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연락선을 통해 남측 준비위 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는 남쪽에서 쟁점이 된 ≪경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말하자면 북측 준비위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연락을 한 것은 ▲경로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남측의 정부당국도 민간행사 성사에 적극 호응하라는 절묘한 수인 셈이다.

어쨌든 이제 공은 남측 정부당국으로 넘어왔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당국은 특히 통일연대 소속인 범민련 남측본부로부터 6.15행사에 ≪범민련·한총련의 조건없는 참가보장 요구≫ 항의를 받고 있는 터에, 대한적십자사를 매개로 한 북측 준비위로부터도 무언의 ≪답변요구≫ 압력을 받게 된 것이다.

정부당국은 남측 준비위와 북측 준비위의 견해를 존중해 줘야 한다. 이번 6.15선언 2주년 기념행사의 성사여부는 정부당국이 방북대표단의 승인 ≪가이드 라인≫을 어느 수준에서 할 것인가로 집약되고 있다. 올해초 ≪새해맞이 남북통일행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당국이 특히 통일연대 소속 대표단을 대거 ≪방북불허≫ 한다면 이번 행사의 성사는 무망하다.

계속 정부당국이 ≪작년 8.15 평양공동행사 이후 국회와 언론에 의해 방북 승인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군색하다. 이미 밝혀졌지만 작년 8.15 평양공동행사의 파장은 방북대표단의 ≪돌출행동≫이라기보다는 일부 수구언론들의 ≪침소봉대≫ 보도에 기인한 탓이 크다. 정부당국은 작년 6.15행사와 8.15행사 때의 방북승인 기준에 준해서 남측 대표단이 올해 6.15 2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6.15행사 때까지 걸림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간 실무회담 무산과정에서 드러난 남측 내부에서의 여러 불협화음과 갈등이 아물지 않은 면이 있으며 또 남은 기간이 보름 남짓해 시간적으로 촉박한 면도 있다. 하지만 작년 수차례에 걸쳐 민화협, 종단, 통일연대 등이 서로 반발짝씩 양보해 남북공동행사를 치르고 성사시킨 바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6.15행사 성사를 위해 남측 민간차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정부당국 또한 ≪방북기준 완화≫를 통해 그 길을 터 줘야 할 것이다.

2002/05/29 통일뉴스

# 미제의 생화학전은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고의적인 범죄행위(3)

##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공동백서(2)

**2. 화학무기사용만행(2)**

이상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이 현지에서 조사확증한 자료들은 미제침략군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각종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기회에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사상자를 냈다는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하여 주었다.

미군공중비적들은 1952년 5월 18일에는 평안남도 대동군에 독해물을 묻힌 조개를 떨구었으며 1952년 9월 평양시 형제산구역 신간 1동과 황해남도 연안지방에 주로 어두운 밤을 리용하여 독해물을 묻힌 가짜돈과 삐라를 뿌리였다.

미제공중비적들은 또한 1952년 2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의 기간에 33차에 걸쳐 독가스탄을 사용하였으며 거의 같은기간 미군지상부대들은 질식성 및 최루성가스탄을 41차에 걸쳐 우리의 방어진지에 발사하였다.

미군이 조선전쟁시기 사용한 대량살륙무기가운데서 스파나팜탄만 하여도 무려 1, 500여만개에 달한다.

미군은 또한 전쟁포로대우에 관한 국제적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우리측 포로들을 독해물≪실험≫대상으로 삼아 야수적으로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살인귀들은 1952년 거제도 제76호 수용소와 룡초도수용소들을 비롯한 모든 수용소들에서 악랄한 방법으로 최루성독가스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독해물로 우리측 포로들에 대한 생체≪실험≫을 진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정신적불구자로 되게 하였다.

미군은 1952년 7월 7일 거제도수용소에서 ≪작업≫에 동원시킨다는 구실밑에 우리측 포로 120명을 특별한 장치를 한 자동차 2대에 갈라 싣고 4시간동안 차에 감금한채 가스무기의 ≪실험≫을 하여 그들 전부가 두달동안이나 눈을 뜨지 못하게 하였으며 나중에는 불구자로 만들었다.

1952년 8월 13일 룡초도 제2호 수용소에서 미군은 자그마한 철조망안에 인민군포로들을 가두어 넣고 1, 000여개의 가스탄을 퍼부어 중독상태를 알아 보는 ≪실험≫을 하였다.

놈들의 이 살인적인 ≪실험≫으로 350명이상이 중한 화상을 입었고 44명이 의식을 상실하고 4명이 희생되였으며 3명이 청각을, 6명이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것은 사실상 실험이 아니라 야만적인 살인행위였다.

미군야수들은 1952년 6월 10일 거제도 제76호 수용소에서 27대의 땅크와 12문의 포를 리용하여 포로들에게 화학탄을 발사하는 귀축 같은 살인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의 이 야수적인 살인만행으로 227명이 죽고 수많은 부상자가 났으며 1952년 9월 29일 거제도 제15호 수용소에서는 24명의 포로들을 군용차에 태운 다음 ≪실험≫을 목적으로 5개의 화학수류탄을 던져 차에 탔던 인원 전부가 의식을 잃게 하였다.

미군은 1952년 12월 30일에는 비행기를 동원하여 거제도 제17호 수용소상공에 독가스를 뿌림으로써 포로전원을 눈병에 걸려 보지 못하는 불구자로 만든 다음 그들을 철저히 격리시키고 1주일에 두번씩 그 중독상태와 그 후과까지 조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미군의 야수적인 화학무기사용만행은 1953년에 이르러 더욱더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1953년 2월 2일 거제도 제11호 수용소에서 미군은 인민군포로들에게 산포기를 리용하여 가스를 뿌려 의식을 잃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후 ≪치료≫해 준다는 구실밑에 병원에 끌고 가 6월 16일에 독가스의 반복중독으로 두 눈을 잃게 하였으며 역시 같은날 거제도 제13호 수용소에서도 독가스의 ≪실험≫대상으로 끌려 간 포로들이 가스중독으로 시력을 잃었다.

1953년 3월 10일 미제살인귀들은 거제도 제15호 수용소에서 인민군포로들에게 화학수류탄을 던지거나 화학탄을 쏘아 가스작용시간을 측정하는 만행까지 감행하였다.

미군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생화학전은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고 우리 조국강토를 무참히 파괴하기 위하여 저지른 고의적이고도 계획적인 범죄행위이다.

미군의 무분별한 생화학무기사용으로 수많은 우리 인민들이 무참히 목숨을 잃거나 불구자로 되였으며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산이 심히 오염되고 생태환경이 엄중히 파괴되였다.

우리 민족은 조선인민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과 불행의 재난을 들씌운 미제살인마들의 죄행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피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 내고야 말것이다.

주체91(2002)년 5월 25일

평 양

#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3)

## 김정일장군님 - 주체86(1997)년 6월 19일

### 2.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의 통일과 부강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2)

주체적 역량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 담보이다.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는 데서 기본은 자체의 정치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자면 물질경제적 역량을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자체의 역량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역량,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다. 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단결에 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기초하여 민족적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는 것은 가장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 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굳게 뭉쳐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계급적 대립이 청산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민족이자 인민이고 인민이자 민족이며 그 통일단결의 중심은 당과 수령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족적 단결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온 사회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로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사회를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전변시킴으로써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혁명의 자주적 주체를 확고히 마련하였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자주적 주체의 위력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나 사회주의건설에서나 우리의 모든 승리의 근본담보로 되고 있다.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그 위력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자체의 정치적 역량과 함께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기의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없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갈 수 없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든 힘을 기울여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담보하는 자체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이 비상히 커지고 세계적으로 치열한 과학기술 경쟁이 벌어지는 조건에서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지지 않고서는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할 수 없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인민은 주체적 입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나라 혁명의 요구와 구체적 현실에 맞게 자체의 투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를 확대발전시키며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자기인민의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키고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적극 동원한다면 능히 과학기술발전의 높은 영마루에 올라설 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적 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해 나갈 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체의 튼튼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마련하는 것을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근본요구로 내세우고 새사회 건설의 첫 시기부터 푼전을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불굴의 투쟁을 벌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경제적 군사적 토대를 쌓았다. 오늘 우리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책동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혁명의 근본이익과 나라의 존엄을 확고히 수호해 나가고 있는 것은 위력한 자립적 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건설해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과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 자주적인 국가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고 나라의 안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데서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민족애와 민족자주의식의 발현이다. 혁명하는 당은 언제나 인민들 속에서 민족자주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사상사업을 적극 벌여 그들이 자기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랑의 감정과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각오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작고 뒤떨어진 나라들, 지난날 큰 나라들의 지배와 간섭을 많이 받아오고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뿌리 깊이 남아 있는 나라들에서 민족자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여야 한다.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자기민족의 우수성을 체득한 데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발현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는 민족의 우수성은 인종적 특성과는 인연이 없으며 어느 특정한 민족만이 지니게 되는 것도 아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다 자체의 우수성이 있으며 그것을 살리고 내세우려는 지향과 요구가 있다. 혁명하는 당은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옳게 보고 그것을 적극 내세워야 인민들 속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고 내세우는 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다. 민족유산을 홀시하고 줴버리는 허무주의는 민족적 우수성의 개화발전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애물이다. 민족의 우수성을 살려나가자면 민족유산을 귀중히 여기는 입장을 가져야 하며 민족의 우수성을 부정하는 허무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극복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을 귀중히 여긴다는 간판밑에 지난날의 것을 덮어놓고 되살리는 복고주의 역시 민족의 우수성을 옳게 살려나갈 수 없게 하는 유해로운 경향이다. 복고주의를 허용하게 되면 착취계급의 요구와 취미가 반영되어 있고 시대의 발전에 역행하는 낡고 뒤떨어진 것들이 되살아나 사회주의의 요구에 맞게 민족의 우수성을 살려나가는 데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민족의 우수성을 옳게 살려나가려면 민족유산에 대한 허무주의적 태도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다같이 배격하고 민족적 입장과 계급적 입장, 역사주의 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옳게 결합시켜 낡은 것 사회주의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내세우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유산을 옳게 살리는 것과 함께 민족의 새로운 우수성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야 한다. 유산으로 내려오는 민족의 우수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우수성들을 창조해 나갈 때 민족의 우수성은 더욱 개화발전하게 되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데서 그것이 노는 역할이 커지게 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 정치와 경제, 사상과 문화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족의 새로운 우수성들을 끊임없이 창조함으로써 인민들 속에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가야 한다. 민족의 우수성은 위대한 수령의 영도밑에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훌륭하게 이루어지며 높이 발양된다. 민족의 우수성은 곧 수령의 위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어 위대한 민족으로 되었으며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우수한 민족성을 지니게 되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르고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김일성**민족의 우수성으로 칭송하고 있다. **김일성**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충성과 효성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오랜 역사적 과정에 실지 체험을 통하여 신념과 의지, 양심과 도덕으로 굳어진 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효심은 **김일성**민족의 훌륭한 민족성의 최고표

##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의 원칙, 민족자주의 원칙을 변함없이 확고히 견지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신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현으로 되고 있으며 **김일성**민족의 모든 우수성의 근본바탕을 이루고 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는 높은 단결정신,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적 신념,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혁명적 낙관주의,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비롯한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 우수성은 위대한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원천을 두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높이 발현되고 있다. 우리는 수령을 충효일심으로 받드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품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인민들이 대대손손 자기수령, 자기당에 충성과 효성을 다 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선민족제일주의 교양을 계속 강화하여 인민들이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곧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을 기화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저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노골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현 시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인민들이 다시금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없애야 한다. 침략과 약탈은 제국주의 본성이며 국제질서가 아무리 변하여도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야망은 달라질 수 없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약탈적 본성을 가려보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 어리석고 위험한 것은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아가기 위한 약탈과 예속의 올가미이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졌던 나라와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똑똑히 보고 언제나 반제자주적 입장을 견결히 지키며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의 자그마한 요소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공포는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의 다른 표현이다. 제국주의는 결코 무서운 존재가 아니며 자기 시대를 다 산 역사의 퇴물이다. 제국주의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반제투쟁을 포기한다면 언제가도 제국주의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의 취약성을 꿰뚫어 보고 허장성세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용감히 맞서야 하며 그들의 반동적 공세를 혁명적 공세로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하고 교활한 민족말살정책과 그것을 합리화하는 반동이론들을 철저히 분쇄하여야 한다. 민족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정책은 오늘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 강도적 궤변 밑에 새로운 형태를 띠고 펼쳐지고 있다. 매개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조건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포괄하는 세계의 일체화란 있을 수 없다. 사회가 발전하고 민족들 사이의 연계와 교류가 밀접해 짐에 따라 민족들의 생활에서 공통성이 늘어나게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들의 독자적이며 개성적인 발전을 전제로 하며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 것을 꾸며낸 것은 전 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만들며 모든 민족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동화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 간판을 걸고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의 위험성을 똑똑히 보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른 민족을 말살하고 동화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대외적으로 뿐 아니라 국내의 소수민족과 외국인 거주자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지난 시기 가장 악랄한 식민지통치와 민족말살정책으로 조선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오늘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적 권리를 억누르고 그들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며 재일조선인들을 저들에게 동화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당과 국가는 해외에 사는 자기민족성원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민족동화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그것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역사에 의하여 파산 당한 인종론, 세계주의를 비롯한 반동이론들은 오늘 여러 가지 형태로 각색되고 변형되어 사람들의 민족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본성을 가리우고 정당화하는 온갖 반동적 사상조류들과 궤변들을 철저히 폭로분쇄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은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어야 한다. 자기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하여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반역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분쇄할 수도 없고 민족의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도 없다. 이것은 우리 조국의 남쪽 땅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역대 반동통치배들의 사대매국행위로 민족성이 심히 유린되어 온 남조선에서는 지금 당국자들의 반민족적인 국제화 세계화 소동으로 하여 민족의 넋과 미풍양속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의 국제화 세계화 소동은 민족적인 모든 것을 말살하고 외세에 나라와 민족을 통채로 넘겨주는 대가로 저들의 권력과 안락을 유지하려는 전대미문의 매국배족행위이다. 국제화 세계화의 간판 아래 실시되는 굴욕적인 개방정책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식 일본식 서양식이 쓸어들어 남조선에서는 정치방식으로부터 말과 글, 생활풍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생활이 미국화, 일본화, 서양화되고 있으며 외세가 판을 치고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를 끊어버리고 자주적 발전의 길을 열어나가려면 나라와 민족을 외세에 팔아먹으며 온갖 민족적 불행과 재난을 가져오는 반역자들을 철저히 쓸어버려야 한다.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국제적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서로 지지성원하며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하여야만 매개나라들에서 민족적 독립과 부강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으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블록불가담나라들,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성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국제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자주권과 평등, 정의와 공정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하며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적극 발전시켜 다같이 부강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 자주, 평화, 친선은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우리 당의 대외정책이념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언제나 자주와 평등, 평화와 친선, 호혜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연계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공정한 국제적 관계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세계를 자주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국제적 임무와 시대적 사명을 다 해 나가야 한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고수하고 구현해 나가는 것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이다.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의 원칙, 민족자주의 원칙을 변함없이 확고히 견지해 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시고 일떠세워주신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3권 제9장

## 제1차 북만원정


1. 조선인민혁명군
2. 부자와 가난뱅이
3. 노야령을 넘어서
4. 영안땅에 모인 하모니카 소리
5. 천교령의 눈보라
6. 인민의 품

# 1. 부자와 가난뱅이(2)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조선사람의 장점이다. 쫓지 않고 재워주는 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인민의 풍속이고 인심이다. 비록 남의 묘를 봐주고 살아가는 산당지기의 가문이였으나 우리 집에서는 손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쌀이 없으면 죽솥에 맹물을 한 바가지 더 부어서라고 끼니를 마련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의 어머니와 삼촌어머니한테는 거죽에 뜬 멀건 물이 차례지곤 하였다.

설사 한 끼나 두 끼를 굶는 한이 있어도 우리 집안 여성들은 절대로 시집타발, 신세타발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내 눈에 새겨진 조선민족의 참모습이고 참표상이였다.

괴춤에 동전 한 푼 없는 장돌뱅이도 마음만 먹으면 조선팔도를 무전여행으로 죄다 편력할 수 있는 것이 저 아득한 삼국시대에서부터 전해내려온 우리 나라의 관례였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조선의 여염집에서 손님대접을 받아본 외국인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런데 저 야비한 지주놈의 몸에서는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고 있단 말인가. 어쩌면 인간에 대해 저렇게도 냉랭할 수 있는가.

그 지주는 우선 도덕적으로 볼 때 무뢰한이였다.

국력이 쇠약한 민족이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나라 없는 백성은 심지어 말과 글과 성까지도 떼울 수 있다. 하지만 나라를 잃었다고 어찌 인정까지 버릴 수 있겠는가. 모두가 저 지주처럼 동족도 몰라보는 돼지가 된다면 조선사람은 조선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다행히도 조선민족 중에는 저 지주와 같은 인간들이 소수이다.

나는 여기서 부자들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3년 여름에 십리평에 주둔하고 있던 구국군의 한 부대가 석현이라는 고을을 치고 경제모연공작을 위해 어떤 중국 부자의 아내를 인질로 붙들어온 적이 있었다. 전족을 한 여자였는데 속옷만 입은 채로 붙잡혀와서 며칠동안 십리평에 머물러 있었다. 구국군들은 그 여자의 남편에게 통고장을 보내 아무아무날까지 돈 얼마를 가지고 오면 너희 아내를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자는 그 돈이면 더 멋있는 여자를 얻어 장가를 다시 들겠다고 하면서 십리평에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다. 구국군에 돈을 내고 그 여자를 데려간 것은 남편이 아니라 친정아버지였다.

심보가 사나운 부자들이란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였다.

우리는 잠자리를 잡아보려고 동네를 또 한 바퀴 돌았다. 이번에는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집에 가서 사정해보자고 하였다. 심보 나쁜 지주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래 윗방 문을 다 열어놓고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초가집이 보였다.

국내당조직건설 사업과 관련한 당시 신문자료

나는 그 집 토방돌 앞에 서서 지주에게 하던 것과 꼭같은 사정을 하였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 자고 갈 수 없겠습니까?≫

주인은 자리에서 움쭉 일어나서 문설주를 짚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여튼 들어와 앉으십시오. 뭐 변변치는 않지만 죽이라도 같이 나눕시다. 다른 것은 없으니 허물하지 마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거 너무 누추해서 안 됐습니다.≫

≪누추하다니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가리게 됐습니까?≫

우리는 주인의 손에 이끌려 방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초라했지만 주인들의 언행과 마음씨에서는 비단 같은 인정이 풍겼다.

주인은 아내를 보고 죽이 한 그릇 더 없는가고 물었다. 주인여자는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광경을 보니 역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정은 부자의 편이 아니라 평민의 편에 있었다. 둘이나 들어왔는데 저녁을 같이 먹자고 청하니 우리로서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인들 몫을 우리가 먹으면 댁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자기나 하겠습니다.≫

나는 밥상 앞에 마주앉아도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아서 자꾸 사양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펄쩍 뛰면서 나를 나무랐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손님으로 오셨으면 손님대접을 받아야지요.…이거 뭐 맛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는 이것밖에 정말 없습니다. 여보, 거 파나 두어 뿌리 뽑아오구려. 장 접시두 하나 더 놓구….≫

주인여자는 남편의 분부대로 파와 장을 가져다가 식탁위에 놓았다.

친혈육 못지 않게 우리를 따뜻이 대해주는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보니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였다. 나는 밥상 앞에 마주앉았으나 동네 밖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동무들 생각이 나서 수저를 들지 못하였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내 조금 있다가 먹겠으니 먼저 식사를 하십시오. 우리 동무들이 아직 동구밖에 떨어져 있는데….≫

≪오실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떠올랐다. 나머지 죽이라고 해야 한 그릇뿐인데 손님이 더 온다면 그것도 야단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두 동무가 더 있는데 발이 다 부르트고 걷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주인님, 이 근처 어디에 여관이 있다는데 그게 정말입니까?≫

≪있지요. 한 7리쯤이나 될까요. 7리면 10리나 같은데 어떻게 상한 발을 끌고 10리까지 가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가실 셈치고 다른 것은 없지만 죽이라도 나누고 어서 주무십시오. 밖에 있는 분들도 데려오시구요.≫

나는 집주인에게 지주의 사람됨됨이 어떤가고 물었다.

주인은 지주를 한마디로 인색하고 심술사나운 사람이라고 하였다. 마을사람들과는 등을 돌려대고 살면서도 경찰이나 관리나부랭이들 하고는 어지간히 친교가 깊다고 덧붙였다. 며칠 전에 조선에서 친척방문을 왔던 한 청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서에 끌려가 취조를 받고 반주검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일이 있는데 그것도 지주의 작간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다.

나는 전령병에게 오늘밤은 이 부락에서 지내려고 하니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동무들을 시켜 산에 가서 대원들을 다 데려오게 하라고 하였다.

얼마 후 한흥권중대장이 부대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왔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60~70명이나 한꺼번에 마을로 쓸어들자 변이 났다고 생각한 지주는 우리 동무들 앞에 나타나 ≪어른네들, 수고하십니다!≫하고 아양을 떨었다. 그리고는 유격대원들을 자기 집에 모시겠다고 수선을 피웠다. 사람이 저렇게 두 가지 낯가죽을 쓰고 이랬다저랬다 해서야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다.

속내를 모르는 한흥권은 퍼그나 감동되어 ≪대장 동지, 저 지주는 소왕청에 있는 장지주나 도문지주처럼 싹싹합니다.≫하고 지주를 칭찬하였다. 장지주란 유격대 원호를 잘하다가 소비에트정부의 추방령을 받고 대두천 쪽으로 내려간 사람이였고 도문지주란 반일부대들이 피복문제를 풀지 못해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의 요구에 따라 500여 벌의 군복을 만들 수 있는 천과 솜을 비롯한 여러가지 후방물자들을 해결해준 양심적인 지주였다. 우리는

그 천으로 소왕청지방에 있는 반일부대들에 옷을 다 해 입혔다.

도문 지주는 친척들을 만나보려고 십리평에 종종 드나들었다. 그런 내막을 어떻게 알았냈던지 우리 동무들이 한번은 경제모연공작을 하려고 지주를 억류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적구활동을 하고 돌아올 때 지도부의 동무들이 방법이 글렀다고 하면서 그를 놓아주었다. 나는 대원들을 시켜 유격구 밖으로 달아나는 지주를 다시 데려오게 한 다음 그에게 반일부대의 피복사정을 털어놓고 호소하였다. 지주는 유격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후 그는 약속을 지켰다.

≪중대장동무, 그놈의 가살에 속지 마오. 그놈은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문도 열어주지 않는 나쁜 놈이오.≫

한흥권은 내 말을 다 듣고나서 어이가 없는 듯 허허 하고 웃었다. 그러더니 주먹을 틀어쥐고 분개해서 말하는 것이였다.

≪듣고보니 아주 고약한 놈이구만요. 저런 놈은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까지껏, 재판을 열구 쏴 제낍시다!≫

나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우둘렁거리는 한흥권에게 손을 저어보였다.

≪그만두오. 그까짓 지주나 한 명 쏴 제껴선 뭘 하겠소. 공연히 세상만 소란해지겠는데… 차라리 조선사람의 양심을 지키라고 따끔하게 일러주는 게 낫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지주놈의 뽕을 빼구 오겠습니다. 저따위 개벼룩같은 놈을 그냥 놔둘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토비들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겠소.≫

나는 한흥권이 도수가 넘는 행동을 할 것 같아서 미리 침을 놓았다.

한흥권이 자기 집에 나타나자 약삭빠른 지주는 턱 밑에 다가들어 대장이 누구인가고 물었다. 대장과 그밖의 지휘관 몇 사람만 치르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른 집에 분숙할 터이니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속심이였다. 박정한 인간이니 계산도 매우 빨랐다.

한흥권은 자기를 대장이라고 소개한 다음 넌지시 이렇게 말했다.

≪이 집이 괜찮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한둬 달 퍼먹고 가두 끔쩍 안할 것 같은데요.≫

≪거뭐 두 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며칠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주는 유격대가 자기 집에 정말 두 달쯤 있을 것만 같아서 얼굴색이 새파랗게 질렸다.

지주가 뭐라건 말건 한흥권은 그냥 시치미를 뻑 따고 상대방이 경풍을 일으킬 아찔아찔한 소리만 하였다.

≪주인님, 거 우리 부하들이 몇 달째 고기를 입에 넣어보지 못했는데 집에 돼지가 몇 마리나 있습니까. 다른 집들은 몰라두 이 집에서만은 쌀을 한 100가마니쯤 쌓아놓구 먹겠지요?≫

≪원, 100가마니라구요. 어림두 없습니다. 다른 집들두 죽을 쒀먹으면서 궁상을 떨지만 쌀은 다 있습니다.≫

≪쌀이 있거나 말거나 당신이 한 턱 내야겠소. 당신은 부자인데 그쯤한 걸 가지구 뭘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오. 당신두 조선사람의 양심을 가졌으면 나라를 독립시키는데 한몫 해야 할 게 아니오. 그래 당신과 같은 사람의 신세를 지지 않구 농량이 없어 겔겔하는 가난뱅이들의 쌀독을 퍼먹으란 거요? 농량마저 없으면 농사를 어떻게 짓는단 말이오?≫

지주는 한흥권의 엄포에 가가 눌려서 돼지도 잡고 쌀도 퍼주었다. 다른 집들에 숙소를 정한 대원들도 그 집 식량은 다치지 않고 지주의 쌀을 받아다가 밥을 지어먹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주었더라면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흥권은 이렇게 지주를 뽕빼놓은 다음 나의 잠자리를 생각하여 그 집에서 돗자리와 이불까지 가지고 돌아왔다. 원래 그는 이런 희극을 잘 노는 걸작이였다.

그날 밤 우리는 보리죽을 권하던 그 순박한 농민의 집에서 한흥권이 가져온 지주집 쌀로 밥을 지어먹었다.

주인은 겁이 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일없겠습니까?≫하고 물었다.

---

나는 주인을 안심시켰다.

≪주인님, 걱정마십시오. 당신들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당신네야 밥가마를 빌려준 것밖에 없는데 뭘 그러십니까. 훗날 지주놈이 걸고들면 유격대가 한 일이니 모르겠다고 하십시오.≫

≪유격대라면 우리두 마음을 놓겠습니다. 이 미물들이 유격대 어른들두 몰라보았습니다 그려.≫

주인 내외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조선사람의 순박한 예절로서 죽이면 죽, 된장이면 된장을 있는 것만치 같이 먹자고 권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주에게는 이런 예절도 없었다. 아마 일본순사들이 대문 앞에 나타났더라면 방석 위에 모시고 알랑거렸을 것이다.

부자와 평민의 차이란 이런 것이였다. 부자들이라고 하여 인정이 있고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였다. 장울화의 아버지 장만정은 대지주였지만 인망이 높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였다. 내가 백과부와 같은 부자를 훌륭한 여자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그가 민족의 계몽과 발전을 위해서 금전을 아끼지 않은 인덕이 높은 애국자라는 데 있다. 그래서 후세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백선행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우리가 만난 그 지주처럼 인색하고 몰인정하였다.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은 물론 세상이치에 닿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경우에나 다 들어맞는 말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에게 보리죽을 권하던 그 농민이 쌀독이 높아서 그런 인정을 베풀었겠는가.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 집 쌀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풋바심한 보리가 한 자루 정도 윗목에 놓여 있었을 뿐이였다.

돈주머니가 크고 재물이 많아도 인덕이 없으면 세상의 버림을 받는다. 오막살이에서 살아도 인덕이 높으면 많은 이웃을 가지게 되고 뭇사람의 존경을 받는 도덕적인 부자가 된다. 인간의 우열을 가르는 척도를 도덕이라고 할 때 우리를 대문 앞에서 쫓아버린 그 지주는 도덕적으로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는 가련한 가난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다운 인정은 고대광실이 아니라 평민들이 사는 오두막에 있었다.

이봉수 부부는 전에 마창에서 일할 때 발진티프스에 걸린 일이 있다. 이봉수의 부인 안순화는 자기 남편이 원장으로 사업하는 병원에 있었는데 굶어 죽은 아이를 파묻으려고 밖으로 기어나가 가둑나무 잎을 덮어주었다.

이봉수는 자기도 아들처럼 인차 죽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드는 순간 혁명동지들이 며칠 전에 가져다준 새 옷을 벗어놓고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써서 그 위에 포개놓았다.

≪이 옷은 얼마 입지 않은 것이니 유서를 발견하는 동지는 나를 대신하여 입으시오.≫

이것이 바로 그 지주와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혁명가들의 인정세계였다.

이봉수는 기적적으로 살아서 혁명을 계속하였다. 그가 남긴 ≪유서≫는 그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증거문건으로 남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고상하고 뜨거운 인정세계였다.

도문 뒷산에 있다가 유격구로 돌아간 다음 우리는 군대들을 모여놓고 그 마을에서 당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해주었다. 이걸 보라. 계급적 본성이다. 어려운 사람은 죽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는데 잘 사는 지주는 죽은 고사하고 문전에서 쫓아버린다. 나쁜 놈이 아닌가. 이런 놈들의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착취사회를 청산해야 한다.

그 이야기가 훌륭한 계급교양자료로 되였다.

그 다음부터 잘 사는 지주와 가난한 농사군에 대한 이야기는 두만강 연안 농촌부락들에서 하나의 화젯거리가 되어 돌아갔다. 그 소문을 들은 인민들은 한결같이 지주를 몹쓸 놈이라고 욕하였고 농사군을 인정머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우리 사복대들이 부락 근처에 가면 청년들이 찾아와서 누구네 집은 잘 사고 누구네 집은 민회소가 있다고 다 귀띔해주었다.

그 당시 농촌에서는 민회소들을 가져다가 길렀다. 민회소라는 것은 일본이 만주를 강점한 후 반동단체인 민회들에서 농민들에게 나누어준 소이다. 농민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 기르면 바치게 되어 있는 그런 소였다. 이것도 노동력을 착취하는 하나의 공간이였다. 민회소들은 뿔에 도장이 박혀 있었다.

청년들이 아무 집에 민회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잡아먹어도 좋다는 소리였다. 유격대원들은 인민들이 대주는 대로 민회소만 골라가며 잡아먹었다. 그러면 일본사람들이 이 동네에는 나쁜 놈들뿐이다. 어떻게 공산군들이 민회소가 있는 집들을 다 조사하고 있는가, 동네 사람들이 대준 것이 틀림없다고 막 야단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농민들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한테 문서가 다 있습디다. 문서를 보고 불러내는데 방법이 있습니까?≫하고 발뺌을 하였다.

나는 오랜 체험을 통하여 부자들일수록 미덕이 없는 매정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느꼈다. 선과 도덕과 등을 진 부 그 자체는 미덕을 낳는 샘이 아니라 미덕을 매장하는 함정이였다. 두만강가의 그 지주가 내 가슴에 단단히 못을 박아놓았다. 그 사람 때문에 그 마을에 대한 인상이 퍼그나 흐려졌다.

나는 그 사건까지 겪고나서 장차 나라가 독립되면 지주, 자본가들이 거들먹거리는 패륜패덕의 낡은 사회를 청산해버리고 만사람이 빈부의 차이가 없이 한가정처럼 화목하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건전한 사회를 세우려고 더 굳게 결심하였다.

우리는 지금 모든 근로자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남의 피땀으로 호의호식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자기의 노동으로 사회의 부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면서도 인덕이 후한 도덕적인 부자들을 만들자는 것이다. 금전이 만능의 수단으로 되어 있는 자본사회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꼭같은 물질과 도덕의 부를 향유하는 시대가 도래할 때 인류를 더럽히는 사회악은 깨끗이 근절될 것이다.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모신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에 여러 나라 인사들이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총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취하신 민족적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자위적 조치를 받들고 적들의 침략책동에 용감하게 맞서 나가고 있는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말하였다.

팔레스티나해방민주주의전선총비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고 수령, 당, 인민대중의 일심 단결된 힘이 있으며 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 진보세력들의 지지가 있는 한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카메룬국회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조선인민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최고이익을 위해 외세와 대항해 나서는 것은 응당하다.

우리는 조선이 외세의 침략책동에 굴복하지 않고 단호한 자위적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같은 3세계나라로서 자부심을 가진다.

조선인민의 투쟁은 3세계의 공동의 이익과 세계평화를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미국이 ≪핵사찰≫문제를 유엔에 끌고 간다 하여도 발전도상나라들은 조선의 편에 서있을 것이며 미국의 시도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다.

카메룬인민민주연합 국제부장도 15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 조치에 지지를 표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결의를 규탄하였다.

앙골라 외무성 부상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정당한 조치이다.

오늘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를 동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유린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미국이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이는 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압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미국의 오만 무례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이 취한 자위적 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힘은 필승불패이다.

레바논사회진보당 대외관계 부부장인 레바논조선친선협회 총서기 알리 유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에 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원수각하께서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신 자위적 조치를 통하여 그이의 위대성, 혁명적 원칙성을 더욱 가슴 뜨겁게 느끼었으며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그이를 현시대의 걸출한 영도자로 더욱 높이 우러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이의 현명한 영도 밑에 공화국정부가 이번에 취한 자위적 조치에 레바논인민들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취한 자위적 조치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오늘 세계적으로 오직 조선만이 할 수 있는 조치이다.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민족사회당 대외관계부장 타우피끄 무한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세계에서 유일초대국으로 된 미국에 맞설 힘있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러시아도 미국에 추종하고 있으며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혁명적 원칙을 버리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원수각하께서 중대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시여 미국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 버리심으로써 세계의 많은 정당들과 인민들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 조선인민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되었으며 조선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있다.

레바논조선친선협회 명예고문인 아부다르 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친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 이번에 취하신 자위적이고 단호한 조치들을 통하여 그이의 위대성을 더욱 잘 알게 되었으며 그이께 진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린다.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된 후 미국은 세계에서 주인행세를 하려고 교만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조선이 미국과 단호히 맞서 자위적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독특한 사회주의 보루의 위용을 세상에 다시 한번 시위하였다.

이 지구상에는 조선과 미국을 상대로 하는 두 세력 균형이 형성되었다.

세계 진보적 역량이 조선을 축으로 새로운 반제투쟁전선을 형성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애국전선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비서이며 짐바브웨국방상인 모웬 마하치는 조선반도 정세에 언급하면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에 대처하여 하달하신 명령과 자위적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자이르대외관계성 국제기구 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조치는 자주권과 나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중대한 조치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최고이익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그 어떤 흥정도 있을 수 없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국제원자력기구 관리이사회 이사인 자이르의 말루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 탈퇴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무슨 ≪제재≫를 운운하는데 대하여 찬성할 수 없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정치의 농락물로 되고 있다는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미국은 다른 국제기구들과 같이 국제원자력기구도 조종하고 있다.

하기에 미국을 ≪국제헌병≫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새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운동 총 비서 비른끄 끼따노위츠, 공산주의자동맹－유고슬라비아를 위한 운동 전국위원회 위원장 드라간 아따나 쏩스끼,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조직비서 몸칠로 요끼츠 등 정당 지도자들과 사회단체 일꾼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사수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자위적 조치≫, ≪적들의 책동에 된 벼락을 안기는 통쾌하고 대담한 작전≫, ≪주동을 틀어쥐고 나가는 승리적인 조치≫, ≪미국과 그 추종분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세르비아급진당 위원장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독일의 함부르그아시아연구소 소장은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에 언급하면서 미국은 조선을 건드릴 그 어떤 명분도 없으며 결코 조선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조선의 지도부와 인민이 굳게 통일 단결되어 있으며 자체의 강력한 무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앙골라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침략책동에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동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한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명령을 하달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부성명을 발표한 것은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한 이 자위적인 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 대외관계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내리신 명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징벌로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이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반대한다.

탄자니아 부수상 겸 내무상인 오구스틴 음레마는 탄자니아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영도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모범의 나라로 되고 있다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탄자니아 정부와 인민은 미국이 조선의 일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조선의 입장을 지지한다.

미국은 조선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기 전에 자기 핵무기부터 없애버려야 한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3세계나라들은 어깨를 겯고 함께 나가야 한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위업을 지지한다.

조선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반드시 자주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조선의 사회주의는 이전 소련과는 다르다.

우리는 조선식사회주의를 지지하며 조선의 사회주의가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는다.

르완다민족종합대학 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을 통하여 내가 체득한 진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와 친애하는 **김정일**각하를 혁명의 수령으로 모신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이다.

최근 조선에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충성으로 받드는 강철같은 일심단결의 힘이 있는 한 조선은 그 어떤 강적의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봉쇄, 외교적 압력을 이겨낼 것이다.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에 대처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 자주권을 위협하는 것과 관련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이것은 위대한 수령과 노숙한 당, 용감한 인민을 가지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내릴 수 있는 대 용단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 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

# 장군의 력사 영원히 흐른다(2)

## ≪노동신문≫ 2월 9일 정론

우리는 잊지 못한다.

그 어느 장군의 유년기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이야기, 5살도 못되신 나이에 말을 타고 비호같이 달리신 전설 같은 일화며 11살 나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김형직선생님께서 물려 주신 권총을 넘겨 받으시던 전화의 그 화폭과 20대도 못이르신 나이에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라는 시구로 룡남산을 드르릉 울린 장군남아의 의기와 배짱, 20살 나시던 해에 백두령장의 도를 닦으시던 어은동군사야영의 나날들…

1974년 봄의 어느 날,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장군의 빨찌산시절이 스민 권총을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권총은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의 유물입니다라고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녀장군께서 항일의 혈전장마다에서 멸적의 불을 퍼부으시였고 어리신 장군님께 사격술을 익혀 주시던 사연 많은 총, 그 총을 손에 드신채 나는 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손에서 이 총을 놓지 않겠소라고 힘 주어 말씀하신 장군님,

력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계승의 그 나날에 어버이수령님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결심이 그이의 가슴속에서 백두의 총과 함께 그리도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은것이 아닌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의 전 과정은 이 땅을 백두산의 모양으로 변혁시키고 우리 력사의 대하에서 낡고 진부하고 색다른 모든 거품을 기슭밖으로 가차없이 쳐밀어내며 용용히 흘러 온 력사였다.

그것은 백두산장군력사를 민족사의 기본흐름으로 거세차게 만들어 온 60성상, 전 세계사를 통하여 가장 힘 있고 정의로운 령도의 전형을 창조해 온 나날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의 그 심원한 폭과 깊이, 그 거대한 민족사적, 세계사적의의와 가치는 장군이라는 그 위대한 부름으로써만 다 리해할수 있고 다 설명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씨앗을 자래우고 꽃 피워 무성한 수림으로 펼쳐 놓으신 그 공적,

항일전의 가설무대에 올랐던 혁명적문학예술을 사회주의 조국땅우에 세계적명작들로 펼쳐 놓은 문학예술혁명의 포성,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로 이 땅에 차넘치게 한 유격대식투쟁와 생활기풍, 속도전, 전격전, 섬멸전이라는 빨찌산싸움방식으로 거세차게 휘몰아 온 창조와 건설의 열풍, 사회주의건설장들을 들었다 놓은 항일유격대식경제선동의 북소리…

년대와 시대마다 그이의 모습은 더더욱 위대하게 안겨 왔다.

사상리론의 천재로, 문학예술의 거장으로, 걸출한 당의 령도자로서의 모습을 나날이 높이 떨치시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신비로운 령도실력을 발휘해 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폭풍 사나운 선군혁명길에서 조국과 사회주의, 민족의 운명을 통채로 맡아 안은 백두산영웅남아, 희세의 선군명장의 모습으로 세계앞에 거연히 나서시였다.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단행했던 ≪고난의 행군≫,

그것은 단순히 조국앞에 드리운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싸움만이 아니였다.

원쑤들은 우리 민족과 혁명의 명맥을 끊어 놓으려고 악을 쓰며 달려 들었고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생명선을 지키고 끊임없이 이어 가기 위해 결사의 싸움을 벌린것이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은 단순히 곤난극복의 대명사가 아니라 이 땅에 다시금 펼쳐 진 백두의 싸움길이라는 말이였다.

백두산형의 기질을 꺾을 자 이 세상에 없다!

산악 같은 이 신념, 이 의지로 오늘의 빨찌산의 김대장이 되시여 총포성 없는 전쟁을 진두지휘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장군이시였기에 그이는 우리 조국이 생사운명의 갈림길에 섰을 때 쌀이 아니라 총대를 틀어 쥐시였고 누구나 생각할수 있는 공장길이 아니라 누구도 생각할수 없었던 전선길로 달리신것이다.

만약 우리 혁명을 그 어떤 양복쟁이 정치가가 이끌었다면 한줌도 못되는 억만장자들의 향락의 불빛아래 수천만 인민이 노예로 되고 이 땅은 또다시 수난의 피바다로 되였을것이다.

백두의 산발을 줄음 잡아 달리시며 일제를 족치시던 항일전의 우리 수령님처럼 바람 세찬 전선길을 달리시고 최전방고지에 오르시여 멸적의 화살표를 그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행군로 따라 승리의 길이 열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어제날 항일유격대의 진격의 나팔소리가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혁명군가로 천만심장을 격동시키고 어제날의 소왕청유격구가 온 나라에로 확대되였다.

≪고난의 행군≫은 조선의 앞길을 가로막는 원쑤들은 위대한 장군의 군대에게서 무자비한 불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 어떤 장애든지 가차없이 부서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온 세상이 정신들게 가르쳐 주었다.

**만경대와 백두산가문이 대를 이어 싸워 가는 그 길우에서 나라를 찾자는 그 뜻도 실현되였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도 일떠섰으며 오늘 우리 혁명은 강성대국위업수행의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백두장군별 우러러 천만리, 백두광명성 따라 천만리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 온 우리 민족앞에 찬란한 미래가 빛나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우리에게는 3대장군이 계신다.**

강성대국건설!

고난의 진펄을 헤쳐 넘어 온 **김일성**민족은 마침내 백두산처럼 웅대한 나라를 전면적으로 일떠세우는 장엄한 시대를 맞이하였다.

강성대국은 위대한 장군의것이다.

보통의 정치가는 기껏해야 문명국을 세우자고 하지만 장군은 대국을 일떠세운다.

위대한 장군의 배짱과 기질, 리상과 포부를 조국땅우에 펼쳐 민족의 기개를 만방에 떨치는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졌다.

백두산장군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 라남의 정신의 불길속에 조국은 강성대국에로의 큰 걸음을 내디디였다.

어제날 야장간의 풀무소리만 울리던 땅에서 인공지구위성이 날아 올랐고 봉건의 흔적을 영영 가셔 버리며 토지정리의 세계적변혁이 일어 났다.

백두산장군가풍이 온 나라에 휘몰아 치는속에 혁명적군인가정들이 수많이 태여나고 사회가 군대를 닮아 가는 군민일치의 높은 경지가 펼쳐 졌으며 총대와 더불어 일심단결이 더욱 굳건해 져 장군식솔의 존엄과 위력이 하늘에 닿았다.

장군총대는 사회주의조선을 고립압살하려던 제국주의의 포위환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 조국을 세계의 머리우에 강대국으로 높이 울려 세웠다.

대륙과 대륙으로 선군기관차를 드세차게 몰아 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으로 지구에는 백두산바람이 불어 쳤고 세계정치사의 흐름에 강력한 충격이 가해 졌다.

침략과 전쟁, 부정의와 불평등으로 가득찬 세계에 자주와 정의의 바람을 맹렬히 불어 넣으며 인류력사가 옳바른 궤도를 따라 전진하게 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활동,

그이는 지구의 장군별이시였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 먹어도 하소할데가 없는 오늘의 세계에서 악과 부정의의 검은 마수를 무자비하게 잘라 버리며 억센 기운을 내뿜는 위대한 장군의 력사는 진보적인류가 의탁할수 있는 정의의 힘이고 밝은 희망이다.

≪사회주의종말≫을 떠들며 기승을 부리는 제국주의압살바람도, 국경들을 사정없이 휩쓸며 밀려 드는 ≪세계화≫의 유혹바람도 백두산장군사의 드센 흐름에는 결코 맞설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 쥐셨기에 인류사는 그만큼 전진하였고 지구우에는 그만큼 신선한 공기가 차넘쳤으며 세상은 그만큼 활기를 띠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을 결사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

그것이 있어 1세대 백두산장군들의 력사가 찬연히 빛나고 백두산의 혈통은 민족만대에로 굳건히 이어 져 흐르게 되였다.

**김일성**민족이여, 긍지를 가지라.

세상을 둘러 보면 별의별 모양의 민족사가 흘러 가지만 우리의것처럼 숭고한 지향과 생신한 활력에 넘쳐 흐르고 인민이 심장을 바쳐 사랑하며 빛내갈만한 그런 위대한 력사가 또 어디에 있는가.

20세기를 뒤흔들어 놓고 새 세기의 령마루를 넘어서 줄기차게 전진해 온 주체혁명위업의 년대기들은 우리 민족사가 영원히 백두산장군사로 흘러야 함을 힘 있게 확증하였다.

백두산장군력사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생명선이다.

장군력사, 이것은 **김일성**민족사의 특수한 생리이다.

장군력사, 이것은 땅은 작아도 존엄높이 살아야 하고 인구는 적어도 대국으로 위용 떨쳐야 하는 백두산의 리치이다.

장군혈통은 우리 민족의 피줄기이다.

물은 흐려질수 있어도 피가 흐려지면 생명이 끊어 진다.

우리 민족은 영원히 장군혈통을 이어 가야만 승리하고 번영한다.

우리의 땅에서는 백두산바람만이 불어야 하며 단 한가닥의 잡바람도 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백두산장군의 품속에서 백두산장군식으로 싸우고 살며 창조하는 멋을 제일로 여긴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새겨 진 ≪지원≫의 심원한 웅지가 백두산장군력사의 계승속에 맥박치고 있다.

만경대와 백두산가문이 대를 이어 싸워 가는 그 길우에서 나라를 찾자는 그 뜻도 실현되였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도 일떠섰으며 오늘 우리 혁명은 강성대국위업수행의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백두장군별 우러러 천만리, 백두광명성 따라 천만리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 온 우리 민족앞에 찬란한 미래가 빛나고 있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우리에게는 3대장군이 계신다.

조국이 통일되고 온 세상이 보란듯이 **김정일**강성대국도 일떠서며 세계가 자주화될 때 백두산의 뜻은 완전히 실현된다.

조선의 정기와 위용은 백두산에 있고 백두산의 힘은 백두산장군들께 체현되여 있다.

장군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

장군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민족의 피줄기 백두산력사를 목숨으로 지키며 빛내여 나가라!

이것이 참다운 영웅이 없어 암흑이였고 백두산장군들을 모시여 광명으로 된 우리 민족사의 엄숙한 요구, 이 나라 만복의 진리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27회
학사 김창호 선생 - 주체91, 5월 29일

# 대학생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49, 1960년 9월 1일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면서 어버이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천명하신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해 대학에 들어서신 첫날부터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셨습니다. 그이께서 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면서 무엇보다 커다란 관심을 돌리신 것은 대학생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4강의에 나누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학생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형의 혁명가라고 하면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해 싸워나가는 혁명가를 말합니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 특질의 하나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 우선 그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은 힘있게 벌리도록 이끄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은 청년학생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자면 그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이라는 것은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문제는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입니다. 그것은 혁명의 승리가 바로 노동계급의 수령의 영도와 그 영도를 받들어 나가는 인민들의 충실성에 의해 이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역사는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인민대중이 수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때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우리 인민은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에 일떠섰으나 참다운 인민의 수령을 모시지 못한 탓으로 해서 헛되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비로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려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렵고 복잡한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진진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인민에게 자주적 인민의 참다운 넋을 심어주고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민을 하나의 혁명적 대가정으로 묶어 세워 백전백승하는 영웅적 인민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으로 어버이로 끝없이 흠모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와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의 충실성을 떠나서 우리 혁명의 자랑찬 노정과 빛나는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는 노동계급의 수령을 모독하고 그 업적을 부정할 때는 그 혁명이 중도반단 되고 좌절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당과 국가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한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혁명의 수령들을 부정하고 그들의 업적을 말살하는 배신행위가 감행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주의 제도 자체가 허물어지게 되였습니다. 이처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문제는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입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은 우선 특히,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첫째로 중시해야 할 사업이였습니다. 그것은 **김일성**종합대학이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시고 있고 수령님께 충성 다하는 것을 제일 생명으로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하고 있게 때문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런데로부터 대학생들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는 교양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면 그이께서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대학생들로 하여금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교양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에게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에 대해 논리적으로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이라는 것은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문제는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그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입니다. 그것은 혁명의 승리가 바로 노동계급의 수령의 영도와 그 영도를 받들어 나가는 인민들의 충실성에 의해 이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역사는 탁월한 수령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인민대중이 수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때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체49, 1960년 12월에 있은 일이였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이른바 개인미신반대사상을 더욱 광란하게 벌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시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들의 회의정형이 벌표되는 것과 관련해서 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원학생들과 담화를 나누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여기에서 노동계급의 수령을 단순히 개인으로 보는 것은 매우 그릇된 견해라고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러신 다음 수령은 혁명의 뇌수이며 당과 인민대중의 이익의 최고체현자로써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깊이 해설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령과 인민대중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첫 시기에 혁명적 수령관에 관한 사상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책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학생들 속에서 충실성 교양을 힘있게 벌릴 수 있는 사상이론적 기초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학생들이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똑똑히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50, 1961년 7월 14일 경제학부 강좌장과 하신 담화를 비롯해서 여러 기회들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영도자이시며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령님은 탁월한 사상이론과 현명한 영도로 현대역사를 빛내이신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영도예술가이실 뿐 아니라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데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적 수령관에 관한 사상과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셨기에 대학생들은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으로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었고 수령님께 완전히 매혹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음으로 숭고한 실천적 모범으로 대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럼 그이께서 대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 어떤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몇가지 사실을 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50, 1961년 5월 25일 와상동 용송사의 도로확장공사의 휴식시간에 당시의 평남일용품공장의 유치원을 찾으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잊지 못할 추억이 많겠지만 자신께서는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 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맞은 주체42, 1953년 6.1절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때 어린 동생과 함께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었는데 어버이 수령님의 안녕을 간절히 축복하는 편지를 위대한 수령님께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수령님의 만수무강은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이며 세월과 더불어 더욱더 간절해지는 최상의 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날의 편지내용을 노래로 남기고 싶어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축복하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하시면서 손수 풍금을 타시며 그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또 다른 사실입니다. 주체51, 1962년 4월 조선인민군 창건 30돐 기념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는 나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시 열병대원으로 직접 참가하셔서 학생들의 행진훈련을 앞장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 아침에는 남 먼저 나오시여 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사열을 받는 것은 우리 혁명전사들의 최대의 영광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행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데 대해 간곡히 가르쳐주셨으며 학생들의 준비상태도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고무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열병행진이 끝난 다음에는 오늘 행사가 아주 잘되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데 대해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는 사업을 더 정중하게 하며 이 사업에서 자그마한 부족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을 영상을 모신 출판물을 정중히 간수하고 다루는 사업에도 세심한 관심을 돌리셨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 대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생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도하신데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친일역적의 후손이 대통령후보라니

지금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반이회창투쟁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엔 광주 전남대학교 학생 김성씨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일역적의 후손이 대통령후보라니≫.

지금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한나라당 이회창이 대권욕을 버리고 정치권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 그러나 이회창은 우리 민중의 이같은 요구에 귀를 기울일 대신 정권쟁탈에 더욱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얼마전 한나라당 대선후보경선이라는데서 이회창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 당선된 소식은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분노를 치솟게 하고 있다. 더욱이 일제 검찰서기를 하면서 동족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친일매국노의 후손이 대통령후보로 나섰다니 이 어찌 개탄할 노릇이 아닌가.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친일역적의 후손인 이회창이 오늘은 미국을 등에 업고 친미매국노로 변신하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반전반미반부시투쟁과 6.15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이회창은 대학언론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부시의 방한을 계기로 폭발한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동맹, 우방국이다. 국가원수가 찾아오는데 성조기를 불태우고 반대 데모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느니 ≪통일후에도 미군은 주둔해야한다≫느니 하면서 반미투쟁에 나선 청년학생들과 우리 민중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해나섰다.

이회창이 주한미군을 할애비처럼 섬기는 것은 자기 애비가 일제때 일본군을 섬기던 역적의 본을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다. 이것은 이회창이야말로 외세에 빌붙어 민족을 팔아먹는 댓가로 더러운 목숨을 연명해가는 희세의 매국노, 민족반역아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역적의 대를 이어오고 있는 이회창이 정치판에서 계속 놀아나면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더이상 그대로 보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청년학생들은 이미 치켜든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한다.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운동조직들과 운동핵심들은 지역별, 대학별 총학생회의 특성에 걸맞게 광범위한 학생들을 반이회창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활동을 짜고 들어 심화시켜야 한다.

지금 벌이고 있는 이회창정치활동대학생감시단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이회창투쟁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더욱 고조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후보자바로알기운동, 이회창바로보기운동을 적극 벌여 각계 민중을 반이회창투쟁에 궐기시키는 것과 함께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에 주동적으로 참가해서 이 기회를 이회창을 심판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회창을 역사의 오물장에 처넣는 것은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앞에 지워진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우리가 오늘의 이 투쟁에서 한걸음 양보하면 이 땅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이 그만큼 미뤄지게 되며 백만학우는 역사앞에 떳떳이 얼굴을 들 수 없다.

백만청년학생들은 반이회창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 하여 친미친일매국노, 반통일역적 이회창을 매장하고 민족반역자들의 소굴인 한나라당에 준엄한 철추를 안겨야 한다.

지금까지 ≪친일역적의 후손이 대통령후보라니≫ 광주 전남대학교 학생 김성씨의 글을 들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못된 짓은 다 도맡아하는 이회창의 행태를 보며 분격을 금치 못해하고 있어요. 얼마전에도 이회창은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서면서 ≪상호주의≫, ≪투명성≫, 그리고 ≪검증≫ 등 이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떠벌였고 **연회에서는 ≪주적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력증강≫에 모를 박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회창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희세의 반통일역적이며 반북대결로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려는 전쟁미치광이라는 걸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고 있죠. 만일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로인해 우리 국민이 당하게 되는 피해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거든요.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반이회창투쟁의지를 더욱 가다듬고 당면한 6월 지방선거와 그리고 12월 대선에 적극 참가해서 이회창을 매장하는 준엄한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할거예요.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9일**

# 동족과 공조하여 외세를 배격해야

6.15남북공동선언발표는 우리 민족의 분단사에 자주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한 역사적 사변이었다. 6.15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는 자주통일의 이정표가 세워지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대전환이 일어났다.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대결에서 화해에로, 냉전에서 평화에로, 분단에서 통일에로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반세기이상의 분단사에 일찍이 없었던 우리 민족의 쾌거였으며 공동의 경사였다.

그런데 6.15공동선언으로 화해와 완화의 난류가 흐르던 한반도에는 부시정권의 등장으로 냉전의 한류가 밀려들게 되었다.

오늘 우리 민족은 부시정권의 무분별한 반북대결, 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엄혹한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전쟁열에 들뜬 미제는 이북을 ≪악의 축≫으로 걸고 들면서 핵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다. 2월 말에는 호전분자의 우두머리 부시가 방한하여 휴전선일대에서 직접 전쟁준비태세를 시찰했다. 그에 이어 이북을 겨냥한 사상최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이 실천적 분위기 속에서 감행되었다. 세계의 광범위한 여론들이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을 떠들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하지 않다.

조국과 민족 앞에 엄중한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 지금 민족구성원이라면 어느 누구도 민족의 운명에 대해 외면할 수 없다.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이 당하게 되는 희생과 재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이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보수수구세력과 극우군부세력은 구태의연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공조체제≫확립을 고창하면서 미일한 3각군사동맹을 강화하여 ≪반테러전≫에 결박할 것을 겨냥한 전쟁≪공조≫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공조란 공동으로 돕는다는 말일진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와 공조를 한다는 것인가. 결론부터 앞세운다면 그들이 떠드는 ≪공조≫란 동족이 사는 북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외세와 ≪공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족을 고립, 압살하기 위해 외세와의 ≪공조≫를 떠드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극악한 사대매국행위이고 반민족적 범죄행위인가.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 장장 반세기이상이나 갈라져 살면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다 겪어 왔다. 우리 민족이 사상과 제도, 이념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 해서 이념과 제도는 민족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을 종식시키고 하루빨리 통일을 이룩해야 할 우리는 우선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믿어야 하며 동족과 손을 잡아야 한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려면 외세와 손을 잡고 ≪공조≫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입장에 서서 이북과 공조하여 외세를 반대, 배격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핏줄을 이은 하나의 민족이며 따라서 통일도상에서 제기되는 의견상이나 문제점들을 민족공동의 이익의 견지에서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남북화해와 민족적 단합, 통일의 분위기가 급격히 고조됐던 사실은 비록 남북이 여러가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민족자주와 애국애족의 입장에 선다면 얼마든지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부시정권은 이남을 ≪미사일방어≫체제에 끌어 들이고 미일에 편입시키며 이 땅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려 놓음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일내기를 할 것을 꾀하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거기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것이 교활한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일본군국주의의 본심이다. 우리 민족은 미제와 일본의 간교한 술책을 똑바로 알고 절대로 그에 넘어 가서는 안된다.

최근의 국제정세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미제야말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무고한 수천수만의 생명도 서슴없이 짓밟는 악의 제국,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이다. 이 날강도들이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그런 비참한 운명을 강요하려고 악을 쓰고 있다. 우리 민족은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상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고 날뛰는 침략자를 몰아내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대매국과 외세의존을 생리로 하는 보수수구세력과 극우군부세력은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오히려 매국반역행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미일상전들에게 아부아첨하고 그와 야합하여 동족인 이북을 적대시하고 모해, 압살함으로써 저들의 집권욕과 기득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전무후무한 식민지주구, 매국역적들이다.

우익반동들이 벌이는 외세와의 결탁, 반북군사공동행동은 미일상전을 등에 업고 그와 야합하여 동족을 압살해 보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배족적인 범죄행위이다. 외세의 힘을 빌어 자기 동족을 해치려 하는 것보다 더 큰 민족적 죄악은 없다.

일찍이 당나라를 끌어들여 동족의 국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통치배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다. 이런 역적의 후예들이 아직도 이 땅을 활보하면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해치고 온 겨레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분한 일인가. 민족보다 외세를 중시하고 외세에게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송두리째 팔아먹는 숭미친일사대매국노들을 이 땅에 그냥 둘 수 없다. 외세를 배격하고 숭미친일주구들을 쓸어 버리는 바로 이 길이 온 겨레가 그토록 숙원하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길인 것이다.

**기성철 - 구국전선 제479호**
**주체91, 5월 21일**

# 미국은 침략자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민중은 물론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전세계가 미국을 악의 제국으로 저주하며 단죄규탄하고 있다.

만인이 공인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한반도에서 뿐아니라 세계도처에서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며 침략과 전쟁을 일삼고 있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다.

지구촌 그 어데라 할 것 없이 미국의 침략마수가 뻗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미국의 피해를 받지 않는 나라가 없다.

원래 미국은 침략과 전쟁, 강탈과 학살을 생리로 이 세상에 생겨난 악의 제국이다. 인디언을 멸종시킨 피바다위에 독버섯으로 솟아난 미국의 역사는 침략과 전쟁의 역사였다.

1940년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여 인간을 핵참화 속에 몰아 넣은 미국은 50년대 6.25북침전쟁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윁남전, 걸프전, 유고전, 아프간전 등 연대와 연대를 이어 세계도처에서 수많은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길지 않은 역사에 백수십차례의 크고 작은 침략전쟁을 일으켰으며 양키들이 인류에게 덮씌운 재난과 불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미국은 1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를 먹어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침략책동을 수없이 자행해왔다.

≪한국은 마땅히 미국의 소유로 되어야 하며 토착주민들은 맥시코인들처럼 쫓겨나거나 인디언처럼 박멸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다.

1945년 8.15와 더불어 이 땅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은 야수의 본성 그대로 가는 곳마다에서 피비린 살육만행을 감행했다.

자주적인 통일정부수립을 요구하여 일어난 제주항쟁을 유혈적으로 탄압하여 도민의 3분의 1인 7만여명을 잔인하게 죽인 양키침략군은 화순과 하의도, 여수와 순천의 노동자, 농민, 군인들은 물론 9월 총파업과 10월민중항쟁자들, 5.10단선반대투쟁자들을 무참히 살육하는 치떨리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한국민중을 살육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일떠선 4.19항쟁자들과 광주민중항쟁자들을 탱크와 대포로 무차별적으로 탄압하며 피의 도시로 만들었다. 미국의 침략적, 야수적 본성은 인류역사에 있어 본적 없는 가장 야만적인 6.25전쟁에서 적나라하게 표출되었다.

삼천리 우리 강토를 초토화하고 수백만 우리 겨레를 학살하며 수천억달러의 우리 재산을 잿가루로 만든 6.25북침전쟁은 무자비하고 능숙한 살인자가 돼야 한다는 미국침략자들의 흡혈귀적 본성을 온 세상에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다.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양민학살을 비롯한 경향각지에서 감행된 양키침략군의 귀축같은 민중대학살만행을 우리 국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쏘아죽이고 찔러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생매장하는 중세기적 살육방법에 세균무기와 화학무기, 포격과 폭격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치떨리는 학살만행을 감행했다.

미제침략군은 50년 6월부터 51년 7월까지 전쟁 1년기간에 만도 이남땅에서 무려 500만명이상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했으며 전쟁 3년기간 우리 민중이 흘린 피는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이북땅 신천군에서만도 20여일동안에 3만 5천여명을 학살한 것을 비롯해 미제침략군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유혈참극이 벌어졌다.

미국은 전후에도 이 땅에서 살육만행을 다반사로 감행하며 북침전쟁의 기회만을 호심탐탐 노려오고 있다.

이 땅에는 북침을 겨냥한 4만명의 주한미침략군과 1천여기의 핵무기를 비롯한 수많은 대량살육무기들이 산적되어 있다.

미국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을 ≪악의 축≫이니, ≪핵선제타격대상≫이니 하면서 우리 민족 공멸을 위한 북침전쟁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한반도와 미국은 상호 지구의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서반구의 미국은 동반구의 이 땅위에 근 60년간 침략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면서 우리 민중의 운명과 직결된 존재로 표방하고 있다.

미국통치자들은 주한미침략군이 없으면 안보가 무너지고 안보체제가 허물어지면 한국민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우리 민족의 6.15공동선언 이행에 전면도전하여 화약내짙은 대규모적인 북침전쟁훈련까지 벌여 놓으며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이 있어야 우리 민중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양우리안에 승냥이가 있어야 양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어불성설의 궤변이다.

미국때문에 우리 민중이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미국침략자들 때문에 우리 민중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피를 흘렸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민중은 양키침략자들의 추악한 행위에 비분강개하여 미국을 저주하며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침략과 전쟁을 본성으로 하는 악의 제국이며 우리 민중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미제침략자들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한 한반도는 평화와 안정이 있을 수 없고 전쟁의 먹구름이 가셔질 수 없다.

우리 민중은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내몰고 평화와 안정이 깃든 새 세상에서 남북민중이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반미, 반전, 미군철수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진용찬 - 구국전선 제479호**
**주체91, 5월 21일**

# 한총련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반통일세력들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6.15시대에 존재가치가 상실된 ≪보안법≫을 휘둘러 해마다 수많은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을 정치수배자로 만들고 갖가지 조작사건으로 죄없이 고통을 받게 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생들을 감옥으로 끌어가고 있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휘둘러 탄압하는 것은 천만번 부당하다.

한총련은 대학생들의 합법적인 자치단체의 연합체이고 학생운동의 대표단체로서 민족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해 온 의로운 단체이다.

57년간이나 남북이 막혀있던 분단의 벽을 허무는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실천단계에 들어선 오늘 한총련을 ≪이적단체≫의 딱지를 붙여 ≪친북세력≫으로 몰아 탄압과 박해를 가하고 있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은 반통일, 반민족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다.

반통일세력은 조국과 민족을 심장에 새기고 조국통일과 반미, 반전 투쟁에 앞장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합법화하며 구속한 모든 학생들을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김상진 - 구국전선 제479호**
**주체91, 5월 21일**

# 김형주의 범죄구성요건은 무엇인가?

## 10기 한총련 의장 구속에 부쳐

지난 5월4일 ≪한국대학생 5월축전≫(10기 한총련 출범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산업대 대운동장.

그곳에서 1만여명의 대학생, 산업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단위의 남녀노소가 뒤엉켜 무대에서 벌어지는 행사를 관전하거나, 대동놀이가 펼쳐졌을 땐 서로의 허리춤을 잡고 기차놀이를 하거나, 주막촌을 따라 펼쳐진 돗자리에선 싸 가지고 온 또는 파는 음식들을 맛깔스럽게 먹고 있었다. 마치 대학교 축제를 기회로 근거리 소풍을 즐기러 나온 모습이었다.

너무나 여유있게 이날 행사를 즐기던 시민들은 이들이 ≪이적단체 한총련≫이란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손자들 3명을 데리고 나온 한 할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자

≪이적단체라는 말 자체가 말장난 아냐? 내가 볼 땐 평범한 대학생들인데 뭘. 제것만 챙기고 남의것, 사회에 관심 없는 애들보단, 정치사회에 관심 가지는게 기특하지. 뭐가 나빠≫

그 할아버지는 손자들이 주변에서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없던 참에 젊은 분위기가 좋아 데려 나왔다고 했다.

건전한 놀이감이 이적단체 행사인가?! 공안당국은 이 할아버지의 사상을 한번 의심해보고 조치를 취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비단 이 할아버지 뿐만이 아니라 2박 3일간의 행사에 다녀간 시민들이 연인원으로 족히 5백여명은 넘을 것 같으니, 산업대 주변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상 검증이라도 해야하지 않을까?

또 대학생 5월 축전 행사의 한 프로그램으로 열린 한국학생운동 20년 토론회에는 현직 국회의원, 원외 지구당 위원장, 일선 기자가 패널로 참석해 한총련을 격려하고 더 잘하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의 정체를 한번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 공안당국의 논리대로라면 말이다.

지난 28일 이 축전을 준비하고 책임진 대표자 격인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씨가 연행됐다. 검찰에 의하면 그가 수갑을 차고 독보의 자유를 박탈당한 이유는 10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주도와 대의원대회 자료집등의 이적표현물 취득혐의다.

역대 의장들이 북과의 교신, 밀입북, 길거리에 ≪꽃병≫던지기(98년도부터는 구경하기도 힘들다)등의 ≪어마어마≫한 거사(?)를 주도한뒤 연행된데 비해 그의 범죄구성요건은 웃음거리로 비춰지는게 사실이다.

이는 10기 한총련이 아직 거사(?)를 한번도 치루지 않았다는걸 반증한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올해 초부터 한총련의 강령규약개정위원회를 만들어 토론과정을 거친후 강령과 규약의 1차 개정안을 만든 것. (이나라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 인권, 여성, 장애등의 강령을 확대)

그리고 자신들의 조직인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에 출입해 공청회를 연 것(기습점거가 아니라 한 국회의원의 초청으로 보무도 당당히 걸어들어갔다), 맨몸으로 도보행진을 한 것등이다.

무엇보다 공안당국이 지적한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보자.

대의원대회는 그해 새롭게 바뀐 구성원이 그들의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고 그해의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다. 5기 한총련에 이적규정판정을 내릴당시 대법원 판결문엔 ≪한총련 이적규정은 5기에만 해당되며 다음 기수의 한총련 이적규정은 그 해의 대의원대회가 끝난 후 결정된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판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이번 대의원대회의 의장선출은 경선으로 치뤄졌고 한 후보는 버스공개투어를 통해 대중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날, 검찰이 불법행사라고 규정한 10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600여명의 대의원들은 무박3일동안 릴레이 회의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더 나은 한총련을 위해 강령과 규약개정을 논의했다.

지난 3월 발족한 한총련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대책위가 발간한 단행본 ≪한총련 이야기≫에는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한총련 이적규정은 초법적이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멀리 국외의 인사들도 이적규정철회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6년째 직선으로 선출된 대학생 자치조직의 대표자들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한국의 현실을 더할나위 없이 안타까워하면서...

그것도, 10년을 맞은 한총련이 대사회적 이미지와 대중성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이 그것을 앞장서 이끌고 있는 대표자를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 가두는 검찰의 의도를 누가 의심하지 않겠는가?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 성립한다. 다시 말해 범죄가 성립되는 요건인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유책성 3대요건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검찰에게 다시한번 묻는다. 김형주의 범죄구성요건은 무엇인가?

**박정미 기자**
**2002/05/30 유뉴스**

# 최후진술도 처벌 대상인가?

대통령 후보 선출과 월드컵대회, 그리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속에서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묻히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수가 1997년 641명에서 98년 465명, 99년 286명, 2000년 128명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최근의 법적용 사례들은 다행스럽다는 느낌을 싹 가시게 만든다.

지난 7일 경기도경 보안수사대는 필자가 재직하는 성공회대 사회학과 휴학생인 전지윤 군을 붙들어 구속했다. 전 군은 총학생회 정책국장을 맡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학생그룹을 개편한 ≪다함께≫의 성공회대 대표로 활동하는 학생으로서 2000년 2학기에 필자의 한국 근현대사 강의를 수강한 제자이기도 하다. 필자는 전군의 구속영장을 보고, 그리고 면회를 다녀온 다른 학생들의 전언을 듣고는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전 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과 민주노동당 학생그룹의 합법 기관지인 ≪열린 주장과 대안≫ ≪다함께≫에 실은 글에 관한 것인데, 그 중에는 99년 9월 서울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때의 최후진술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은 이미 종결된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도 지났고, 2000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된 사건이다. 법정에서 행한 진술은 가장 기본적인 자기변론권의 행사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또 이미 종결된 사건의 최후진술을 새삼 문제 삼는다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최후진술 내용 중 문제가 된 부분은 두 곳인데, 하나는 ≪자본주의는 영원불변한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고 행동에 옮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인권 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은 너무나 위선적≫이라고 비판한 대목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짓은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에 대한 비판을 긴급조치로 처벌한 일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이 선진적 인권국가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김대중 정부는 우리 사회의 인권시계를 유신독재의 암흑기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구속영장의 혐의사실에서 또하나 기가 막힌 대목은 ≪조선일보≫와 병역비리에 대한 비판을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며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려 한다는 점이다. 언론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이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이유는 이 신문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의 지배층에 만연한 병역비리 역시 사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암적 병폐다. 조선일보와 ≪신의 아들들≫의 병역비리에 대한 비판이 어떻게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일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경찰은 전 군이 필자의 한국 근현대사 수업시간의 찬반토론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표내용까지 문제삼고 있다. 만약 경찰이 수업시간의 발표를 문제 삼는다면, 먼저 그런 발표를 시킨 필자를, 나아가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수업시간에 다루는 수많은 인문사회과학 교수들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의 국가보안법 적용사례를 보면, 이제는 정권의 안보도 아니고 수구세력과 국가보안법 자체의 안보만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2000년도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128명 중에서 한총련 대의원이란 이유로 이적단체 가입죄로 구속된 자가 101명에 이른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은 20조에 상금조항을 두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체포한 기관원들에게 1인당 20만~40만원의 ≪국가보안 유공자 수당≫을 지급하여 악법의 오남용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가와 자유민주 질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자체를 위해 어린 학생들만을 감옥으로 보내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해야 한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한국현대사)**
**2002/05/30 인터넷 한겨레**

# ≪이번에는 ≪3조원대 구축함≫ 도입 의혹≫?

## 국방부, 해군 구축함 구매 성적발표 돌연 연기

국방부는 30일로 예정돼 있던 해군의 차세대구축함(KDX-III)에 장착할 전투체계의 시험평가 결과발표를 돌연 연기해 파문을 빚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기전투기(F-X) 선정과정에 시험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한 로비의혹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던 국방부가 앞으로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외국산 무기를 구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차세대구축함(KDX-III) 구매는 ≪해군의 F-X≫ 사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요예산이 3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따라서 미국과 네덜란드의 두 방위산업체가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

국방부는 당초 차세대구축함에 장착할 전투체계의 시험평가 결과를 30일 김동신 장관의 결재를 거쳐 언론에 공개한 후 6월 중순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김 장관이 돌연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군은 당초 4월까지 전투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와 협상을 모두 마치고, 5월에 기종을 결정해 6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집행승인까지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공군의 차기전투기 구매 결정이 계속 늦춰지면서 해군의 계획도 밀려 당초 일정보다 한달 늦은 30일 국방장관의 결재를 받을 예정이었다.

국방부 공보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험평가 결과는 다소 시기가 늦춰진 것일뿐 반드시 언론에 공개할 것 ≪이라며 ≪장관이 결재를 하지 않으신 것은 서류상에 아직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F-X 사업 때 오해가 많아서 특히 신중하게 처리하는 분위기≫라며 ≪아직 공식적인 발표 일정 등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F-X사업때 곤욕을 치룬 국방부가 ≪비공개≫로 해군의 차세대구축함을 구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김동신 국방장관은 F-X사업의 평가자료 공개후 잡음이 끊이지 않자 지난 4월 국회 국방위답변때 ≪앞으로 무기획득사업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었다.

현재 해군이 추진중인 차세대구축함 사업은 총 2조9천6백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대공 · 대유도탄 · 대함 · 대잠수함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7천톤급 대형 구축함 3대를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실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 사업의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외국계 방산업체는 이지스(AEGIS)체계를 앞세운 미국의 세계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와 아파르(APAR)체제를 앞세운 네덜란드의 텔라스사이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가격 면에서는 아파르가 우위에 있지만 실제 운용중인 국가가 없어, 이지스 쪽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F-X때 프랑스의 라팔이 가격 등에서 우위에 있었던 반면, 미국의 보잉이 부시정부를 앞세운 외교공세로 결국 F-X 사업을 따냈던 것과 대단히 유사한 구도이다.

시민, 재야단체들은 이에 ≪이번 사업은 이북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방위(MD)체제를 보조하기 위한 ≪해군판 F-X≫사업≫이라며 적극반대하고 있다.

해군은 이같은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지난 10일 공보실을 통해 ≪KDX-III는 MD와 무관하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사업은 80년대부터 계획해 추진중인 사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손봉석 기자**
**2002/05/30 프레시안**

##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반대 1인시위

자통협, 겨레문화답사연합 등으로 이루어진 ≪(가칭)덕수궁 미대사관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미대사관측의 이런 요구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하고 부당한 주권 침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자국의 외교적 편의만 내세운 부당한 법 개정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민모임은 또한 미대사관측의 요구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사대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서울시와 관계당국은 이 부지를 ≪재매입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덕수궁을 비롯한 정동일대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시민모임은 이를 위해 1인 시위와 캠페인, 온라인-오프라인상의 서명전, 홈페이지 개설, 학술 세미나, 덕수궁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장 후보 공약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2002/05/30 오마이뉴스**

# 여성노동자 4명, 목숨 건 ≪한강대교 점거≫

≪우리는 살기 위해 여기 올라왔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노조원들을 다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회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약정 파기로 생존권을 빼앗긴 노동자들이 ≪한강대교≫를 점령했다. 전국 금속연맹 산하 한국 시그네틱스 지회 소속 여성 노동자 4명은 29일 오후 5시부터 한강대교 남쪽 높이 10미터 가량의 철골구조물 위로 올라가 30일 오후 2시까지 21시간에 걸쳐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장형진 회장은 파주이전 수용하라≫, ≪죽어가는 회사 살렸더니 정리해고 웬말이냐≫ 등의 플래카드 4장을 철골구조물 아래 걸어놓고 2명씩 나눠 아치형 구조물 위에 올라가 그 위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했다.

여성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한강대교 위에는 29일 밤부터 시그네틱스 노조 소속 노동자 100여명이 몰려들어 함께 밤을 새웠다. 시그네틱스 노조가 고공농성을 벌인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회사측의 정리해고와 무책임한 행동에 항의하며 29일 한강대교 고공농성에 들어간 이들은 임영숙(35) 시그네틱스 노조 부지회장과 윤민례(34) 사무국장, 정승현(34) 대의원, 이미경씨 등 4명. 이들 중 임씨는 파업주도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으며 수배중에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 등이 한강대교 철골구조물 위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이유는 회사측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약속한 공장의 ≪파주 이전≫ 약정을 지키지 않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실시했기 때문. 반도체부품 조립업체인 시그네틱스는 지난 2000년 4월 영풍그룹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조합원들에게 ≪파주 공장 이전≫을 약속했었다.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또 지난해부터 시작돼 300여 일을 넘기고 있는 ≪파업 투쟁≫ 과정에서 회사측과 경찰이 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해 왔다고 밝혔다.

전형기 노조 상황실장은 ≪시그네틱스의 지분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영풍그룹이 워크아웃을 명분으로 160여명에 달하는 노조원을 정리해고 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아 왔다≫며 ≪농성 노동자들의 연행 과정에서도 구로경찰서가 생리중인 여성에 대한 알몸검색을 진행하는 등 모욕적인 처사를 했다≫고 전했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지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성경씨도 ≪염창동 공장 매각에 따른 서울 공장의 파주 이전을 회사측이 약속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회사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휴가반납, 임금체불 등을 감수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정리해고뿐이었다≫고 말하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한강대교 철골구조물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정승현씨는 ≪시그네틱스 양수제 사장보다 시그네틱스 주식의 80% 지분을 갖고 있는 영풍그룹 장형진 회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룹 책임자들과의 면담이 이뤄질 때까지 고공농성을 무기한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29일 임씨 등이 한강대교를 점거하자 119 구조대 등과 함께 한강대교에 에어쿠션과 매트리스를 받쳐 두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안전사고를 염려해 30일 오전 임씨 등을 끌어내린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농성자들의 투신을 우려한 노조원들의 반발로 실행하지 못했다.

임씨 등은 농성에 들어간 지 21시간 만인 30일 오후 2시경 시그네틱스 경영진과의 면담 일정이 잡혔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자진해서 농성을 풀었다. 시그네틱스 노조와 경영진은 6월 2일 오후 1시경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김영균 이성규 기자**
**2002/05/30 오마이뉴스**

# 한국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문제(2)

## 2) 한국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결성해야 할 연합전선조직체는 민족민주연합전선(2)

정치강령에서는 또한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반대(노동자), 농축산물시장개방반대, 농가부채탕감, 적정농산물가격보장(농민), 한총련 이적단체규정철회(청년학생) 등 현 시점에서 각계각층 민중의 절박한 요구들을 정확히 반영함과 동시에 민노총, 전농, 한총련,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주요 민민운동단체들과 시민운동단체들의 정치강령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결성에 범민족적인 관심이 집중되게 하며 전체 민민운동권차원에서 전개되게 해야 할 것이다.

외세에 예속적이며 비정상적인 자본주의인 한국에서의 사회변혁운동의 중요 특징의 하나는 매우 폭넓은 사회계급적지반 위에서 전개되는 변혁운동이라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 농민 대중을 위시한 청년학생, 지식인, 도시서민, 민족자본가, 애국적 종교인 등 광범한 계급, 계층이 변혁운동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민민연합전선조직체가 망라할 대상 역시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을 설정하는데서 근본기준은 한국사회의 자주화실현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이 본질상 자주화운동이고 그것이 사회변혁운동의 주되는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주화에 대한 입장여부에 따라 기본적으로 변혁운동추진역량과 투쟁대상이 식별되며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이 규제되게 된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자주화를 지향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이다. 개별적 인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의 소속정파와 신앙, 계급출신에 제약되지 말아야 한다. 보수진영에 속한 인물이건, 진보진영에 속한 인물이건, 지주출신이건, 재벌출신이건, 군부출신이건 관계없이 반미, 반외세, 자주화의 지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킬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은 또한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계급, 계층과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세력과 자주화세력은 밀착되어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자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의 밀접한 연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한국의 민주세력은 그 안에 다수의 자주세력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변혁운동의 심화발전에 따라 민주화세력의 일부가 대오에서 떨어져 나가 지배세력의 편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주민주세력으로 발전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변혁운동가들속에서 사회의 자주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회의 자주화는 그것의 보편적인 정당성으로부터 지배세력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 않고 있으며 6.15공동선언 발표이후로는 집권세력들까지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자주화에 대한 해석은 교묘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한편 민민연합전선조직체는 자주화와 민주화의 양대과제수행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로부터 민민연합전선조직체는 당연히 민주화세력을 중요한 망라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중요 망라대상은 사회시민운동세력이다.

현 시점에서 보면 미군기지철수운동, ≪소파≫개정운동 등 반미자주화운동에서 시민운동세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운동가들은 시민운동단체들이 강령에 반미자주화문제를 또렷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실천투쟁에서 미군철수라는 근본요구를 접어 둔채 미군범죄문제,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문제, ≪소파≫개정 같은 전술적 요구들만 제기하고 투쟁한다는 부족점만 찾으면서 연합의 대상이 못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협애한 편견이다. 시민운동단체들이 전술적 단계의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반미자주화투쟁을 대중적 단계에 올려 세우는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지난 4.13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이 실증한바와 같이 시민운동세력의 민주화에 대한 지향은 매우 높다. 이것은 시민운동세력이 한국의 중요한 자주역량인 동시에 민주화역량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세력은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주요 망라대상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한국의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종교인들 역시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주요 망라대상으로 된다.

한국의 애국적 종교인들은 역사적으로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최근년간 그들의 자주화, 민주화투쟁열의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애국적 종교인들은 마땅히 민민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켜야 할 중요한 대상으로 된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켜야 할 대상으로서 여야정당안의 진보적 정치인들에 대해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지금 여야 보수정당 안에는 운동권출신을 비롯해 진보적 경향을 가진 인사들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다. 그중에는 하나의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로서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이들은 반제자주적인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JP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직에 취임한 것에 대해 JP를 한일굴욕외교의 장본인으로 규정하고 그의 즉각적인 사퇴를 제기한 사실, 여야당내 40여명의 의원들이 ≪소파≫전면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회차원의 결의안채택을 추진하기로 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 지난 시기 보수파로 분류되던 의원들도 일부 참가했다.

이러한 자주적 성향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매국노로서의 전적이 없는 한 과거를 불문하고 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에 망라시킬 대상으로 보고 그들과의 사업을 적극 벌어야 한다.

이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망라대상을 설정함에서는 최대한의 관용과 아량을 가지고 일정정도의 반미자주적 지향이나 민주적 지향을 지닌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다 받아들임으로써 명실공히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로 되게 해야 한다.

모든 사회적 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 발생발전한다. 연합전선운동 역시 그에 합당한 주체세력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 이 주체세력은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실현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연합전선운동의 전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연합전선운동에서 그 주체세력이 이 같은 역할을 담당 수행하려면 그것이 진보정치세력과 기층민중속에서 사회적 대표성을 인정받는 정치조직이어야 하며 민민운동권에서 상당한 정도의 위상이 인정되는 정치조직이어야 한다.

지금 한국민족민주운동권의 일각에서는 민노총이나 전국연합을 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상술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합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물론 민노총과 전국연합이 민민운동세력의 연대,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는 매우 정당하지만...

우선 민노총의 경우 그것은 노동자대중의 조직이지 각계각층의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조직은 아니다. 또 식민지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은 기득권에서 철저히 배제된 계급으로서 변혁운동역량의 핵심적 부분이지만 그들의 투쟁이 노농대중을 비롯한 모든 진보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물론 1,200만의 노동계급이 똘똘 뭉쳐 한국사회의 합법적인 지도역량으로 부상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민노총의 활동은 노동자대중의 제한된 계급적 이해관계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다.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얼마 전에 있은 서울지하철노조파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당시 시민운동단체들은 수백만 서울시민의 발을 묶는 지하철노조파업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 문제로 민노총과 시민운동단체들 사이에 일정한 오해와 알륵이 생긴바 있다. 이것은 민노총이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이익에만 집착함으로써 시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다른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이로부터 민노총은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충분히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전국연합은 어떠한가. 전국연합은 정치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민노총, 한총련, 시민운동단체들과 같은 유력한 민민운동단체들을 실질적으로 망라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의 진보세력에서 사회적 대표성을 갖지 못하며 또한 민민운동권에서 지도적 권위도 확실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가까운 장래에 전국연합이 민노총이나 한총련, 시민운동단체들을 망라시켜 위상을 크게 개선할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국연합 역시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는 충분히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의 사회여건에서 민민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 가장 합당한 것은 합법적인 진보정당이다.

본디 연합전선운동은 각이한 정당, 정파들간에 정치적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그 주체세력으로는 마땅히 정당형태를 갖춘 정치조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제도정치권 안팎의 여러 정당, 정파와의 폭넓은 정치적 연합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면정권시기인 1961년 2월 민족자주통일협의회(민자통)가 결성된바 있다. 여기에는 근 40개의 민민운동단체들과 중간혁신정당들까지 참가했다. 당시로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체세력으로 활동한 것은 사회대중당(대표 김달호), 사회당(대표 최근우)과 같은 합법적인 혁신정당들이었다.

제반 사실들은 연합전선운동의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그 주체세력은 정당형태의 정치조직이어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민민운동권안에서 유일하게 정당형태를 갖춘 조직인 민노당은 아직 원내에 단 1명의 의석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 위상이 높지 못하고 또 당의 계급구성면에서도 문제성이 있는 등 적지 않은 부족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부족점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진보적인 정치이념과 자주적 민주사회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합법적 진보정당으로서 반동보수정치에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는 민중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난 4.13총선과 6.27지방선거를 통해 민노당은 그 어느 민민운동단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정치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결함들을 고쳐주어서라도 민노당을 한국사회의 모든 진보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발전시키고 그를 주체세력으로 내세워 모든 민민운동세력, 진보적 시민운동세력을 망라하는 대규모의 민족민주운동련합전선조직체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 3) 연합전선운동내에서의 주요 원칙과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방도

### 연합전선운동에서의 주요원칙

연합전선운동은 각이한 계급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주장을 가진 정당,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간의 정치적 동맹을 실현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으로서 이에 관한 일련의 원칙을 올바르게 관철해야 한다.

첫째, 독자성의 원칙을 올바르게 견지해야 한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독자성은 본질상 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이 견지해야 할 입장에 관한 문제이다.

이 원칙의 기본요구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연합전선운동의 전과정에서 그 주체세력이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일관하게 견지하는 것이다.

주체세력은 연합전선운동의 여러 대상 중에서 사회변혁에 대한 의지와 입장이 가장 투철한 정치세력이며 따라서 정치적 주장 역시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다. 연합전선운동과정에는 다른 정당이나 단체들 속에서 주체세력의 진보적인 정치적 주장을 약화시키거나 철회시키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합전선을 깨부수겠다고 하며 압력이 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주체세력은 자기의 기본 정치적 주장을 양보하지 말고 점차적인 방법으로 다른 정치세력의 정치적 주장을 자기의 진보적인 정치적 주장에 접근시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노력함으로써 연합전선운동의 변혁적 성격을 견지해야 한다.

다른 하나의 요구는 주체세력이 독자적으로 조직정치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연합전선운동의 성패는 다수 경우 그 주체세력의 역할여하에 따라 좌우되게 된다. 연합전선조직체안에서 주체세력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 자체를 조직정치적으로 부단히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합전선운동과정에는 일부 다른 세력들 중에서 주체세력이 강화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그것을 견제하려는 동향이 표출될 수 있다. 주체세력은 이에 구애됨이 없이 독자적으로 적극적인 조직정치활동을 벌이어 자기 대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연합전선조직체안에서 자기의 위상을 계속 높이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대방존중의 원칙이다.

연합전선운동에서의 대방존중의 원칙은 철저히 상호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연합전선운동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대방존중원칙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상호간에 대방이 신봉하는 신앙과 정견을 존중하고 자기의 신앙과 정견을 대방에게 내리 먹이려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종교인들과 연합하고자 하면서 연합전선조직체안에서 노골화된 반종교선전을 진행한다면 연합이 실현될 수 없고 설사 일시적 연합이 실현되었다 해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연합이 깨지고 말 것이다.

대방존중원칙의 다른 하나의 내용은 대방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그 조직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8.15직후 이북에서 김일성주석은 민족자본가계급까지를 포용하는 광폭의 연합전선노선을 제시했으며 이것이 각계각층 민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일부 지역의 당, 정권기관의 지도적 지위에 있던 이들은 중요 산업국유화 법령이 발표된 후 민족자본가들의 기업까지 국유화처리를 하는, 말하자면 그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침범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연합전선노선관철에 큰 저애를 주었다. 그런가 하면 8.15직후 박헌영 공산당 패들은 여운형의 인민당 등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정당들과 연합하자고 하면서 그 당들에 프락치를 박아 조직비밀을 내탐하고 조직와해를 획책하는 등 대방존중의 원칙에 안 맞는 저속한 행위를 함으로써 연합을 결렬시켰다.

셋째, 구동존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동존이의 원칙이란 문자 그대로 차이점들은 일단 접어 두고 공통점을 찾아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구동존이원칙의 기본요구는 공통점을 중시하는 것이다. 연합을 지향하는 각이한 세력간에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상 면에서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공통점보다도 차이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차이점에 대해서는 묵인하면서 보류해 두고 사소한 공통점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중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연합을 모색해야 한다.

1948년 망국적인 5.10단선을 앞두고 김일성주석이 김구선생과 손을 잡은 것은 연합전선운동에서의 구동존이 원칙구현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김구는 반공적인 민족주의자로서 8.15를 전후해 반공적인 전적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영구분단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이북의 공산주의자들과도 합작해야 한다는 투철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닌 사람이었다.

김일성주석은 김구의 반공적인 이념이나 반공적인 전적에 대해서는 일체 불문하고 그의 뜨거운 조국애, 민족애를 소중하게 보고 그와 손을 잡음으로써 민족운동에서의 공산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간의 연합의 귀감을 역사에 기록했다.

넷째, 투쟁과 단결의 양자결합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상술한 구동존이원칙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연합전선대오는 그 주체세력을 비롯한 연합대상들간에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면에서 공통성과 함께 차이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그 안에서 공통성에 기초한 단결이 모색되고 차이성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연합전선대오안에서 그 주체세력은 연합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 대방의 부정적인 면들을 그냥 덮어둔 채 일면적으로 단결만을 강조해도 안되며 반대로 대방의 긍정적인 면들을 보려고 안하고 계급적 제한성 등 부정적인 면만을 거론하면서 투쟁일면만을 강조해도 안 된다. 전자는 연합전선대오안의 상대적으로 후진한 세력의 정치적 진보를 저해하여 전체적으로 연합전선대오가 변혁운동의 요구에 맞게 강화발전될 수 없게 하며 후자는 연합의 결렬과 연합전선대오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연합전선운동에서 그 주체세력은 반드시 단결과 투쟁의 양자를 밀착시켜 나가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 양자결합원칙의 본질적 요구는 단결을 기본으로 하고 단결의 목적에 부합되게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연합전선대오는 변혁운동의 벗들로 이루어진 대오이다. 이것은 연합전선대오안의 그 주체세력과 다른 여러 세력간의 관계에서 기본은 공통성이고 차이성은 부차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연합전선대오안의 일부 세력의 부정적인 행태가 아무리 큰 혐오감을 자아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높은 인내심과 아량을 가지고 꾸준히 정치적 영향을 주어 올바른 길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연합전선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실현에로 나가야 한다.

다섯째, 상하층 연합 결합원칙을 관철하는 것이다.

연합전선운동에서 상층연합이란 어느 정도 진보성을 가진 정당, 단체의 상층인사들이나 개별적인 상류인사들과의 연합을 의미하며 하층연합이란 상층의 영향하에 있는 일반대중과의 연합을 말한다.

상하층연합은 상생적인 작용을 한다. 다시 말해서 상층연합은 하층연합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반대로 하층연합은 상층연합을 용이하게 한다. 이로부터 연합전선운동에서 상하층연합의 결합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상하층연합 결합원칙의 주요한 내용은 하층연합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상층연합을 적중히 결합하는 것이다.

동요성이 심한 상층과의 연합은 그의 공고성면에서 많은 제한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하층과의 연합과 결합되고 하층연합에 의해 안받침되면 상층의 제한성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한편 하층연합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고하며 또 그것은 대중적 변혁운동역량을 조성하는 연합전선운동의 근본목적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연합전선운동에서 주체세력은 언제나 하층과의 연합에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하며 하층대중속에서 조직정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그들의 정치적 수준을 주체세력의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동시에 그들 속에서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층연합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의 현실적 방도

한국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건설해야 할 연합전선조직체는 민민운동의 모든 지역조직들과 부문조직들, 진보적 사회시민운동단체들과 진보적 종교단체들, 지어 제도정치권안의 자주적, 진보적 성향의 개별인사들까지 하나로 결집하는 대규모의 민족민주운동연합전선조직체로 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적 진행과 6.15공동선언의 실천으로 한국변혁운동발전에 매우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몇 개의 민민운동단체가 연합해 협소한 또는 한시적인 연합전선조직체로 발족시키거나 다소 그 폭이 크고 항구적 성격의 연합전선조직체라 해도 기층민중운동단체연합의 범위에 국한되는 연합전선조직체로서는 현시기 격동적인 정세를 올바로 활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북정상회담으로 한국변혁운동의 저변이 전례 없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은 당면하게 대규모의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민민운동의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모종의 중간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성사시키는 방도를 택할 수도 있다.

그 하나의 방도는 몇 개의 민민운동단체들로 먼저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내오고 거기에 다른 민민운동단체들과 시민운동단체들, 진보적 종교운동단체들을 연속 결집하는 방법으로 대규모의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연합, 민노총 등이 정치강령상 유사성이 많고 다 같이 연대, 연합을 강령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것은 현실성이 있는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방도라고 볼 수 있다.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체 건설의 다른 하나의 방도는 이미 결성되어 있는 모종의 사안별 또는 한시적인 연합전선조직체를 상설적인 연합전선조직체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결성하는 것이다.

지금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과 같은 반미자주화를 정치강령으로 하는 연합전선체들이 여러개 조직되어 있다. 여기에는 민노총, 경실련, 녹색연합 등이 망라되어 있다. ≪국보법철폐 행동연대≫와 같은 민주화를 정치강령으로 하는 유사한 연합전선체들도 있다. 물론 이 단체들이 아직은 그 규모도 크지 못하고 또 개별사안 해결을 목표로 하고 한시적인 조직이라는 제한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별 연합전선조직체들을 한데 묶는다면 그것을 폭 넓은 연합전선조직체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여기에 이여의 다른 민민운동단체들과 시민운동단체들, 진보적 종교운동단체들을 더 망라시켜 상설적인 연합전선조직체로 전환시킨다면 얼마든지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상술한 두 가지 방도 외에도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방도는 여러 갈래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방도로 결성하든 그것이 대중투쟁과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의 의식개혁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지 않는 한 성과를 이룩할 수 없다.

널리 공인된 바와 같이 대중투쟁은 민중을 자주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 가장 힘있는 방도로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이 따로 있고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중투쟁과정이 곧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과정으로 되며 대중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서만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사업도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대중투쟁측면에서는 우선 소파전면개정이나 국보법철폐투쟁, 6.15공동선언 지지관철투쟁과 같은 사안별 대중투쟁을 전 민민운동차원에서 각계각층의 광범한 민중의 참가 밑에 힘차게 벌여야 한다. 이것은 사안별 대중투쟁조직을 연합전선적 성격의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사안별 대중투쟁에서 다른 사안별 투쟁단체들과의 연대공동투쟁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안별 대중투쟁조직들을 전 민민운동차원의 연합전선적 투쟁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의 의식개혁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그들이 민민운동단체들 사이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에 관한 투철한 의지를 갖는 것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말로써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나 실천에서는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가며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연합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이론으로 정신 무장하는 문제이다. 변혁운동에서의 실천은 언제나 변혁적인 이론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중요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이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을 공유하게 되면 그를 위한 실천활동에서의 의견상이나 마찰도 많이 감소될 것이며 따라서 연대, 연합이 한결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중요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이 패권의식을 철저히 극복하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부차적인 문제 같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각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의 주도권욕망, 패권의식이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되고 있다. 연합전선운동에 참가하는 모든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이 변혁운동의 운명보다 자기 조직의 위상부터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대상조직의 규모가 크건 작건, 사회적 위상이 높건 낮건 불문하고 모든 운동단체들이 동등한 자격에서 상호 진심으로 존중하고 진지하게 단합을 모색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가장 절박한 요청으로 나서고 있는 대규모 민민연합전선조직체 건설을 성사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한국의 사회변혁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한백연**

**2000년 9월 집필 11월 발표**